

인 천 특 별 시 대
인 천 특 별 시 민

인천 새로운 시작

한반도 평화번영시대
두 번째 인천 개항이 시작됩니다.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국무령 2018. 07. 10
2018. 07. 10 JULY

2017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수상지

07

2018 JULY

굿모닝 인천
INCHEON MONTHLY MAGAZINE



COVER STORY
Retro? Newtro!

매를 오래된 것이 더 새롭고 아름답다. 인천은 과거와 미래가 조화로운 도시, 최초의 최고가 공존하는 도시다. 시간의 흔적을 온전히 보듬어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탄생시킨 공간으로 들어가 본다. 사진은 옛 강화의 영광을 꿈꾸는, 조양병직 '신문리 미술관'의 이용철 대표.

표지 사진 류왕현



소래습지생태공원

새 길,
당신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길은 단선이 아닌 복선이며, 갈림길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거라는 희망으로 또 하루를 열어 나갑니다.

두근두근, 다가올 인천의 새 길.
그 길을 당신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따듯한 두 손을 맞잡고 서로 보폭을 맞추며, 천천히.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대행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발행처 인천광역시 — 발행일 2018년 7월 1일 —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 편집인 브랜드담당관
편집장 대행 정경숙 — 기획·취재 편집위원 김윤경 — 사진 김보섭·김성환·류창현·최준근
디자인·인쇄 (주)씨에디터 —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CONTENTS

- 04 인천미소 개발에 밀려나는 추억 ‘굿모닝인천’에 담아주길… 外
- 06 인천, 새로운 시작 민선 7기 출범 - 시장이 걸어온 길 - 주요 공약 - 시민 메시지
- 16 커버스토리 Retro? Newtro! ⑦ 조양방직 ‘신문리 미술관’
- 22 여름엔, 인천 섬 덕적·소야도 연도교 개통 - 덕적·소야도 명소
- 28 여름밤 루프톱에서 무더위를 날리다
- 32 인천 VS 세계 도시 ⑦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VS 영국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
- 36 얼굴 좀, 봄시다 경계에 꽃피울 ‘신여성’, 유영이
- 38 문화 캘린더 선데이 콘서트 이한나 비올라 독주회 外
- 42 시정 뉴스 인천 변화상 한눈에… 사진 1만2,000여 장 공개 外
- 48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 50 컬러링 인천 대이작도 ‘섬마을 밴드음악축제’
- 52 Info Box 뮤지컬, 공연예술에 관심 있는 누구나 ‘2018 인천왈츠’ 外
- 57 재미있는 브랜드 이야기 브랜드, 놀이가 되다 크룩스
- 58 모닝 커피 한잔 ‘한국의 시애틀’ 음악으로 충만하길
- 59 인천 사는 나무 교동도 봉소리 느티나무



굿모닝인천은 웹진(goodmorning.incheon.go.kr)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한 ‘굿모닝인천’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 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전자책으로도 서비스합니다. 구글플레이 이북, 네이버북스, 인터넷 서점 알라딘, 교보문고 등에서 각 스토어의 안내에 따라 뷰어를 설치한 후 보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포합니다. 구독 문의 인천광역시 브랜드담당관실 032-440-8306

인천과 독자를 잇는 ‘미’디어
독자에게 인천을 알리는 ‘소’식통
‘인천미소’입니다.

인천시는 시민 여러분을 향해
늘 열려 있습니다.
항상 미소 짓습니다.

인천미소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시정 소식지 ‘굿모닝인천’
(goodmorning.incheon.go.kr)
인천시 라이브소셜방송 ‘ON通인천’(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enews.incheon.go.kr)

인천시 SNS

페이스북(www.facebook.com/allwaysincheon)
블로그(blog.incheon.kr)
유튜브(www.youtube.com/user/icncityhall)
트위터(twitter.com/allwaysincheon)
카카오톡(story.kakao.com/ch/incheoncity)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allways_incheon)
웨이보(www.weibo.com/incheon)

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

개발에 밀려나는 추억 ‘굿모닝인천’에 담아주길...

독자 오명희 부평구



인천에 정착해 산 지도 벌써 39년이 흘렀습니다. 흥천에 살던 우리 가족은
제가 네 살 되던 해 인천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언니,
오빠들도 인천에서 학교를 다니고 결혼해 이제는 이곳을 삶의 터전이자
제2의 고향이라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울에 살던 저의 남편
까지도 12년째 인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끔 제가 알
지 못하는 길이나 장소를 남편이 설명해 줄 때도 있습니다.

얼마 전 남편이 지인에게서 ‘굿모닝인천’을 받아왔습니다. 평소 책을 즐
겨 읽지는 않지만 인천에 관한 잡지이기에 펼쳐보게 되었고, 그 속에서
십정동 벽화마을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제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근처이기도 합니다. 가끔 아이를 데리
러 학교에 가면 ‘나쁜 녀석들’ ‘응답하라 1988’ 그리고 모델들이 촬영하는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주변 사람들이 삼삼오오 나와 구경
하며 웃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여러 방향으로 뻗어 있는
골목 벽에는 화려하면서도 친근해 보이는 꽃그림, 해맑은 얼굴로 즐겁게
뛰노는 아이들을 그린 그림,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에 절로 미소를 짓게
해주는 따뜻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모습도,
그림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재개발로 인해 건물들이 하나하나 부서지는 모습을 보면 가슴 한쪽이
허전해지는 느낌입니다. 물론 여러 사람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인천 사람들의 추억이 깃든 장소가 사라진
다는 건 많이 아쉬운 일입니다. 또 다른 추억이 사라지기 전에, 인천의 숨
겨진 명소가 ‘굿모닝인천’을 통해 더 많은 인천인과 타 지역 사람들에게 알
려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굿모닝인천’과 함께하는 독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참여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문의 : ☎ 440-8305/goodmorning.incheon.go.kr → 독자마당

보고 싶다 ‘굿모닝인천’ 듣고 싶다 ‘시민의 목소리’



기억해야 할, 옛 모습

매월 초면 반가운 손님처럼 ‘굿모닝인천’을 기다립니다. 40년을 넘게 인천에 살면서도 지역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아 ‘굿모닝인천’을 읽으며 새롭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만족스럽지만, 더 바란다면 노인을 위한 시설 등
다양한 연령층을 아우르는 내용을 실어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처럼 사라지고 있는 인천의 옛 모습을 많이 다뤄
주길 바랍니다.

- 이현선 미추홀구 도화동

시민뿐 아닌, 모두의 인천

월미도를 여행하다가 우연히 ‘굿모닝인천’을 접했습니다. 서울에서 보는 기관지보다 내용이 알차고 재미있어
서 나도 모르게 여행도 있고 책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구독 신청까지 하게 되었네요. 앞으로도 인천
시민뿐만 아닌 모두에게 다가가는 인천시, 그리고 ‘굿모닝인천’이 되면 좋겠습니다.

- 이문섭 서울시 중랑구

늘 그리운 인천

충주로 시집온 지 25년이 흘렀습니다. 아직 인천에 어머니와 동생이 살고 있어서, 인천은 여전히 제게 있어 마음
의 고향입니다. 인천이 그리울 때면 ‘굿모닝인천’을 펼쳐 봅니다. 지난 호에서는 제가 살던 배다리 헌책방 골목의
모습을 접하고, 반가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화려한 도시도 좋지만, 서민들이 살아가는 구도심은 우리에게 엄마
의 품 같은 존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 장순옥 충북 충주시

일본에서 온 특별한 손님

얼마 전 제가 근무하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일본 관광객 두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굿모닝인천’ 5월호에 인천에서
촬영한 배우 장근석의 드라마 기사가 실렸다는 소식을 듣고, 책을 구하기 위해 방문한 겁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
지만, ‘굿모닝인천’을 받고 아이처럼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굿모닝인천’
덕분에 특별한 인연을 맺은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 윤희정 서구 경서동

소중한 이야기, 고맙습니다



‘굿모닝인천’ 1년 모으면 ‘올웨이즈 인천!’

‘굿모닝인천’을 올 한 해 매달 모아 차곡차곡 쌓으면,
인천시 도시 브랜드 ‘올웨이즈 인천(all ways INCHEON)’이 완성됩니다.
‘굿모닝인천’ 2018년 컬렉터에 도전해 보세요!

인천 새로운 시작

인천특별시대 시민이 시장입니다

인천에 산다는 것, 인천 사람이라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자랑스러운 시대가 열린다. 2018년 7월 1일, 인천시 민선 7기가 ‘인천특별시대’를 향해 담대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민선 7기 박남춘 시장은 ‘시민이 시장’이라고 강조하며, 희망찬 인천의 내일을 열어갈 것을 약속했다. 300만 인천시민이 만들어가는 새 시대, 오늘보다 더 눈부시게 빛날 인천의 내일을 그려본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대행 |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최준근 자유사진가

취임식 취소, 시민 안전부터

6월 말,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었다. 기상청은 뿌라삐룬의 영향이 약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방심은 금물이다.

민선 7기 박남춘 시장은 임기 첫날인 1일, 시 재난안전상황실로 출근해 태풍 북상에 따른 피해 및 대비 상황을 보고받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2일로 예정된 취임식은 취소됐다. 박 시장의 취임식은 7월 2일 오전 10시, 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누구나 참여하는 ‘열린 취임식’으로 진행할 계획이었다.

박 시장은 “취임식 취소로 참석을 예정했던 시민 여러분과 힘들게 행사를 준비한 공무원, 관계자들에게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며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덧붙여 “저지대 침수로 인해 시민의 재산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항만 시설과 공단지역의 안전을 점검해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현충탑 참배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른 아침 수봉공원 현충탑을 찾은 박남춘 시장은 빗속에서 호국 영령을 위해 참배했다. 이후 상습 침수지역인 미추홀구 승기사거리 현장을 방문하고 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취임 선서를 한 후, 본격적인 재난안전 대비 업무에 들어갔다.

빗속을 뚫고 내딛은, ‘인천특별시대’를 향한 담대한 첫걸음.
‘시민이 곧 시장’이다. 이제, 시민 중심의 새 시대가 열린다.



태풍의 복상으로
취임식은 취소됐지만,
현충탑 참배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시민이 곧 시장이다

박 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지 않는 정치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부터 낮추고, 새로워지겠다. 시장의 ‘특권’은 내려놓고 ‘권력’은 시민께 돌려드리겠다” 또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안부터 챙기고, 보여주기식 사업은 하지 않겠다. 이 과정에서 공직 사회가 시민의 뜻대로 시대 변화를 이끄는 주체가 되도록 설득하고 함께하겠다”라며 시민 중심의 확고한 시정 철학을 밝혔다.

화려한 취임식은 없었지만, 인천의 새 시대를 향한 그의 발걸음과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박 시장은 민선 7기 출범 첫날 ‘300만 시민이 시장’이라는 명제를 시민과 세상을 향해 던졌다. ‘인천 특별시민’이 함께 열어가는 ‘인천특별시대’, 그 놀라운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300만 인천시민의 기대가 현실이 되는 그날이 곧 오리라, 우리는 믿는다.

‘인천특별시대’의 시작.
인천에 산다는 것, 인천 사람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자랑스러운 시대가 열린다.

2018년 7월 1일, ‘인천특별시대’의 시작

박 시장은 취임사에서 “오늘은 300만 시민 모두가 인천의 주인으로 시장에 취임하는 날”이라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2018년 7월 1일, 시민이 주인이 되는 ‘인천특별시대’의 서막이 열린 것이다. 이제, ‘공정’, ‘소통’, ‘혁신’으로 인천의 가치를 키우고, 시민의 자부심은 높아질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시민이 주도적으로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특별시’를 만든다. 민관이 함께하는 분야별 위원회를 구성해 시정의 중심에 시민을 모신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과 수시로 소통해, 시민에게 길을 묻고 시민과 함께 길을 열어간다. 둘째, 원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특별시’를 만든다. 인천은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다. ‘도시재생 전담기구’를 설립해 원도심의 삶에 행복의 기운을 불어넣고, 신도시의 꿈은 세계를 향해 키워간다. 셋째, 어디든 쉽게 오갈 수 있는 ‘교통특별시’를 만든다. 머지않아 청라에서 서울까지 10분대 시대, 인천역에서 서울 구로역까지 새로운 제2경인 전철 시대가 열린다. 넷째, 일자리가 넘치는 ‘경제특별시’를 만든다. ‘시장 직속의 일자리 위원회’를 구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원해 경제의 기초를 탄탄히 다진다. 나아가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인천형 창업 플랫폼을 조성해 인천 경제에 힘을 싣는다. 다섯째, 편안한 삶을 위해 ‘복지특별시’를 만든다. 인천만의 ‘복지기준선’을 만들고, 인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되찾아준다. 여섯째, 아이들의 꿈이 커나갈 수 있도록 ‘교육·보육특별시’를 만든다. 차별 없는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행복한 보육환경을 가꾼다. 일곱째, 한반도 평화번영시대, ‘동북아평화특별시’를 만든다. 인천 앞바다를 평화의 황금어장으로 키우고, 영종도에서 강화를 거쳐 개성, 해주까지 남북평화도로 건설을 추진한다. 이제, 남북이 손잡고 인천에서 한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것이다.



1. 민선 7기, 첫 결재를 하는 박남춘 시장.
300만 인천시민의 기대가 현실이 되는 날이 오리라, 우리는 믿는다.
2. 임기 첫날, 박 시장은 시 재난안전상황실로 출근해
태풍 피해 및 대비 상황을 보고받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3. 박 시장은 취임 선서 후 방호원, 환경미화원 등 격무부서 직원을 만나
현장의 고충에 귀 기울였다.
4. 시민과 눈빛을 맞추고 따스한 두 손을 맞잡는, 소통과 공감의 시정이 펼쳐진다.



‘진실’의 힘으로, ‘사람 사는 세상’ 꿈꾼다

민선 7기 ‘인천특별시대’를 열어갈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시민의 자긍심을 지키고, 희망 가득한 새로운 인천을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시민들이 반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정 구현으로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행복해 할, 진정으로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꾼다. 인천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갈 박남춘 시장이 걸어온 길을 돌아봤다.

정리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1. 박남춘 시장의 유년 시절 가족사진
(뒷줄 왼쪽부터 어머니, 아버지
앞줄 왼쪽부터 누나, 할머니, 남동생, 박남춘 시장)
2. 제물포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련복을 입고 촬영한 사진

■ 박남춘 시장은 과일 장사를 하는 어머니, 인천 미8군 항만사령부 군무원인 아버지와 중구 송월동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박문초등학교 졸업 후 동산중학교 2학년 때 쪽방촌 이웃 사람들의 팍팍한 삶의 모습에 충격을 받아 청소년적십자회(RCY)에 가입,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농촌 일손 돕기를 비롯해 주말이면 보육원, 양로원 등을 방문하며 학우들과 봉사활동에 집중했고 경기도 지역 RCY 중등부 회장으로까지 선출됐다. 그가 지금까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아내와 함께 지역 봉사활동만큼은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은 어린 시절 배운 ‘믿음과 나눔의 기쁨’ 덕분이다.

■ 제물포고등학교를 거쳐 고려대 법대를 다니며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시절, 인생의 진로를 바꾸게 한 스승을 만나게 된다. 평소 그를 눈여겨본 행정학과 백완기 교수가 사회 고급 인재들이 사법시험에 몰려드는 세태를 비판하며 그에게 유능한 행정전문가가 돼 세계를 무대로 역량을 펼쳐보라고 설득한 것. “행정가가 이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하는 때가 곧 올 것”이라는 백 교수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고, 결국 그는 20여 년을 간직해온 법관의 꿈을 접고 마침내 행정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3. 박남춘 시장의 공군 장교 복무 시절. 왼쪽은 아내 최혜경 씨
4. 수습 사무관을 함께 지낸 행정고시 24회 동기들과 함께
(앞줄 오른쪽이 박남춘 시장)
5. 참여정부 인사수석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집무실에서 담소를 나누는 모습

■ 1980년 22세 나이로 행정고시에 합격한 그는 당시 행시 합격생 동기들이 선호하는 내무부와 경제 관련 부처가 아닌, 비인기 부서인 해운항만청을 지원하며 바다 행정과 첫 인연을 맺었다. 당시 그는 논어에 나오는 구절인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나라가 설 수 없다(民無信不立)’를 가슴에 품고 다녔다고 한다. 공직자가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진실해야 하고 진실을 믿고 원칙과 소신에 따라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는 일화도 있다. 해운항만청에서 부산항 관내 공유수면 매립업무를 담당했던 그는,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형이 대표를 맡은 업체에 편의를 주라는 압력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기업과 주민들을 설득해 법적 절차대로 사업을 진행했고, 오히려 전두환 정권이 물러난 후 5공 비리 척결 때에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

■ 해운항만청이 해양수산부로 승격되고 2000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해수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그는 당시 노무현 장관 아래서 해수부 총무과장직을 맡으며 노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이때 노 전 대통령과 맺은 인연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인사수석 비서관까지 이어졌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람 사는 세상’의 철학을 공유할 수 있었고, 이를 실현할 시스템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다. 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청와대를 나온 그는 2012년 인천에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고, 2016년 재선에 성공했으며 이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도전, 인천시장에 당선됐다.

■ 인천시민은 한반도 화해와 협력의 시대에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 삶이 풍요로운 인천’을 기대하고 희망한다. 박남춘 시장은 자신의 고향인 인천을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발을 맞춰 ‘서해평화협력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민선 7기 인천시장 박남춘. 개항 이래 120여 년 동안 나라의 관문 역할을 하며 산업화를 주도했던 인천에 두 번째 개항의 기회가 왔다고 예고한 그는, 지금 새로운 인천의 시작을 위해 인천시민과 함께할 준비를 마쳤다.

인천 새로운 시작

‘인천특별시대’ 열다



‘새로운 인천’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민선 7기 인천시정이 출범했다. 민선 7기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는 도시,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 교통혁명이 실현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100년 뒤 후손들의 역사적 평가까지 염두에 두고 설계한 민선 7기의 공약은 긍정, 소통, 혁신으로 인천의 가치를 키우고, 시민의 자부심을 높이겠다는 각오를 담고 있다.

서해평화협력시대 동북아평화특별시 인천

- 서해평화협력청 설치, UN 평화사무국 송도 유치
- 인천·개성·해주를 연계한 ‘남북 공동경제자유구역’ 추진
- 남북공동어로구역·해상파시 조성해 NLL을 평화의 바다로!
- 인천·개성 간 ‘고려역사문화복원’ 추진 및 교류 정례화
- 동북아 시대 대외진출의 전략적 국제관문으로 만들기 위한 땅길, 바닷길, 하늘길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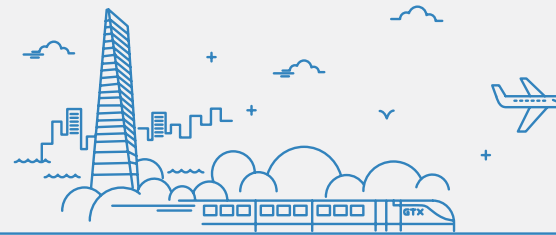
원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특별시 인천

- 원도심 전담 부시장제 도입, 도시재생 총괄 전담기구 설립
- 시민 중심 도시재생위원회 운영
- 원주민 정착률 높이는 지역별 현장소통센터 설치
- 인천내항 재개발, 노후산단 재생 등 거점별 패키지 도시재생 추진
- 맞춤형 원도심 혁신지구 지정



수도권 교통특별시 인천

- 서울지하철 2호선 환승 없이 청라까지 연장
- 제2경인선 광역철도 신설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 노선 조기 착공
-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및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
- 제3연륙교 조기 건설



대한민국 경제특별시 인천

-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 신설, 청년 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원 시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 투자 지구별 맞춤형 해외투자 유치
- 장애인 취업 확대 지원
-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제 도입
-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노인 공공근로 급여 현실화



역사와 문화가 있는 국제관광도시

- 인천의 역사문화콘텐츠 기반 관광산업 육성
- 해양과 섬, 갯벌 등 생태관광자원화 추진
- 지역 유희시설 및 노후 문화시설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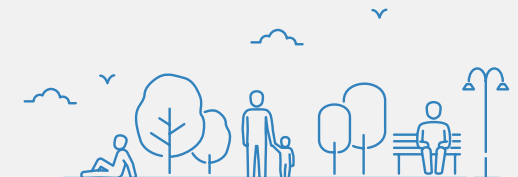


복지가 특별한 인천

- 인천 제2의료원·시립공공요양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 독거노인 IoT 기반 ‘안심 안부 서비스’
- 장애인과 어르신 위한 배리어프리 건물·교통시설 확충
- 어르신 위한 ‘효드림 종합복지카드’ 도입

쾌적하고 안전한 인천

- 수도권 미세먼지 공동대응 상설기구, 미세먼지 상황실 설치
- 생태하천 복원 및 도시 숲 심터 조성
- 빅데이터 재난안전센터 설치, 위험요소 실시간 모니터링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 추진



“노인 일자리가 충분한 도시가 되길”



김형성(80) 지하철 도우미, 부평구

“기초연금도 못 받고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친구가 많습니다. 우리 노인에게도 최소 월 50만~70만원을 벌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주차관리나 공원관리 등 뭐든 좋습니다. 또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문화 서비스’도 희망합니다.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땐 도우미가 필요해 일자리까지 창출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겠지요.”

“장애인 일자리도 충분했으면...”



윤선화(27) 학생, 미추홀구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있는 한울대학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이수하고 지난해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아직 일할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적당한 시기가 되면 독립하고 싶어요. 장애인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이 더 많이 공급되면 좋겠습니다.”

“교육 수준, 도시 이미지 높아지길”



김민선(37) 주부, 남동구

“인천의 도시 이미지가 좀 더 높아지길 바랍니다. 특히 두 아이를 둔 엄마로서 교육 수준이 높아져 ‘전국 최하위’라는 오명을 벗길 바랍니다. 무상급식이나 무상교육은 필요하나, 교육의 질도 중요합니다. 어린이집과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교통안전 대책도 세워주시고요. 또한 문화 혜택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송하완(40) 일러스트레이터, 서구

“도시 접근성 높여줄 사통팔달 교통 환영”

“청라국제도시는 서울보다 조용하고 깨끗하며, 주변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어 주거 자체는 참 만족스럽습니다. 문제는 교통입니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많이 개선됐으나, 서울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이 청라까지 연장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파주나 일산 등 지리적으로 가까운 다른 도시와의 접근성도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 ‘인천특별시민’ 희망하다

7월 1일, 민선 7기 인천시정이 새롭게 출발했다.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계층의 시민에게 민선 7기에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물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청년 등 우리 시의 경제 주체와 노인, 장애인 등 우리 이웃은 먹고사는 문제가 개선되길 바랐다. 이와 함께 도시의 미래를 위해 사람 중심의 원도심 개발, 교육과 문화의 질 향상,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등을 기대했다.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유재은(27) 청년 창업자, 미추홀구

“청년을 위한 좀 더 실질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일례로 강소기업과 구직자가 각각 홍보 동영상 제작에 공유하는 플랫폼이 인기인데, 인천에서도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또한 청년 창업자는 공공기관 용역을 따고 싶어도 자격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입찰 자체가 힘듭니다.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해 검증된 청년에게는 자격 조건을 낮춰 기회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제로화, 꼭 시행되길”



임현숙(54)·김세미(30) 모녀 자영업자, 연수구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제로화’가 꼭 추진되길 바랍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자영업자는 힘이 듭니다. 인건비 아끼려고 가족끼리 일해도 치솟는 임대료에 비닐봉지도 카드로 결제하는 상황에서, 월 70만~80만원에 달하는 수수료가 절약되면 숨통이 트일 거 같아요. 교통도 개선되길 바랍니다. 이곳 스마트벨리가 지식정보단지에서 걸어서 20분 거리라 입주 기업이 늘지 않아요. 비즈니스하기 좋은 송도국제도시가 되길 바랍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시급, 조속한 추진 기대”



차창덕(65) 전통시장 상인, 서구

“인천 축산물시장은 축산물로 특화되어 있지만, 특화 음식이나 편의시설이 부족해 침체 국면에 있습니다. 십정동, 가좌동 일대를 재생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축산물시장도 대상지에 포함시켜 활력을 불어넣어 주세요. 또 전통시장 공동물류센터 및 상인회관 건립, 태양광 설치 사업, 상권활성화 지원재단 설립 등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이 꼭 추진되길 바랍니다.”

“원도심 단순 개발보다 개성, 공생 중심”



김성환(45) 교사, 미추홀구

“원도심 주민들이 ‘젠트리피케이션’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시가 원도심을 개발함에 있어 공생을 중시하고 사람 중심의 정책을 펴길 바랍니다. 특히 인천이 그동안 재정 문제를 겪어왔는데, 앞으로는 시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집행하길 바랍니다. 또 지역예술인과 시민이 대종문화를 즐길 공간이 확충되면 좋겠습니다.”



직조기 돌아가던, 빛나던 그 시절로

때론 오래된 것이 더 새롭고 아름답다. 인천은 과거와 미래가 조화로운 도시, 최초와 최고가 공존하는 도시다. 시간의 흔적을 온전히 보듬어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탄생시킨 공간으로 들어가 본다. 그 일곱 번째로 직조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던, 그 옛날 강화의 영광을 다시 꿈꾸는 조양방직 '신문리 미술관'을 찾았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대행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다시 찾은 폐허, 새로운 시작

“꼭 기억해 둘게요. 다시 만나는 날,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예쁘게 만져놓을게요.” 지난해 가을 유난히도 맑던 어느 날, 옛 조양방직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그리고 오늘 다시 찾은 폐허에는, 그의 약속대로 스러져가던 건물이 아름답고 거대한 작품으로 거듭나 있었다.

“건물이 ‘살려달라’, ‘도와달라’ 말을 걸었어요.” 이용철(53) 씨는 지난해 초 고철이나 조금 건져볼 심산으로 처음 조양방직 터를 찾았다. 지인이 좋아할 만한 곳이 있다며, 한사코 같이 가자고 손을 이끌었다. “이 양반이 미쳤나. 누굴 죽이려고. 안 본 걸로 합시다.” 보는 순간, 정신이 아찔하고 숨이 턱 막혔다. 당시 공장 터는 쇠파이프와 쓰레기 더미에 뒤덮여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건물은 다 무너져 내리고 그나마 남아 있는 몸체는 등나무 덩굴이 옥죄듯 휘감고 있었다.

그 후로 까맣게 잊고 살았는데, 어느 날 문득 옛 공장 터가 머릿속에 떠오르더니 사라지지 않았다. ‘한 번만 더 가보자.’ 그렇게 다시 찾은 폐허에서 그는 시간의 연속성이 낡은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짙은 어둠 속에서 묵묵히 세월의 무게를 떠받들고 있는 트러스 구조의 이끼림에 그대로 빠져들었다. 결국 ‘그래, 같이 가보자’ 결심을 했다.



같은 공간, 같은 사람, 다른 시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한사코 사진 찍기를 거절했다. “이 건물만 찍으세요. 나는 이곳을 주물럭거리다 가는 사람이지만, 여긴 영원할 테니까.” 결국 그의 ‘귀한 손’만 담을 수 있었다. 그리고 다시 만난 오늘, 그는 얼굴에 초점을 맞추길 허락했다.





2017년 가을

스러지기 직전,
그를 만난 후



2018년 여름

새 숨을 틔,
오늘



옛 조양방직.
이끼가 움트던 폐허에 망치질
소리가 울려 퍼지고,
일 년 후 '신문리 미술관'으로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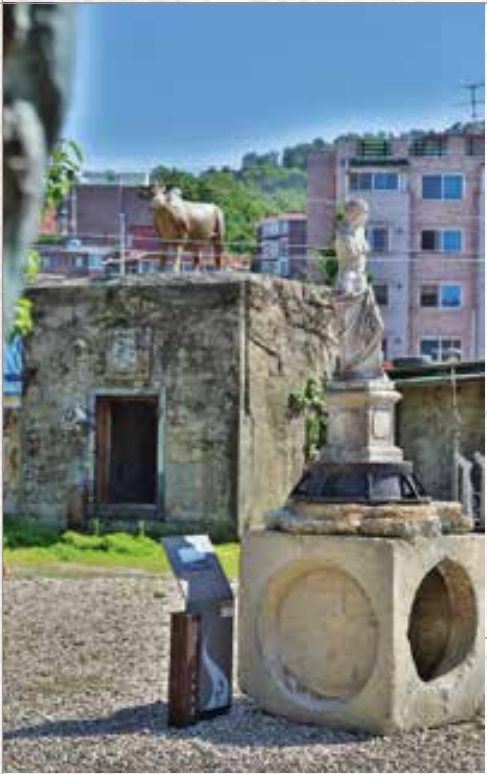
스러지기 직전,
새 숨을 불어넣다

“그래서, 대체 뭐하자는 겁니까?” 공사 첫날, 조양방직 터를 찾은 인부들의 뒷 나간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다들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했다. 햇볕 한 줌 비집을 틈 없는 길은 어둠 속, 쓰레기 더미를 치우고 먼지를 털어내자 낡은 건물이 힘없이 바스라졌다. 먼저 주저앉은 기둥을 일으켜 세우는 작업이 이어졌다. 망치질을 거듭할수록 등골에 진땀이 쫓겼다. 다들 무서워서 일을 못하겠다고며 진저리를 쳤다. “마치 귀신이 떠받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둠 속에서 지붕이 기둥도 없이 멀쩡히 솟아 있었으니까요. 이제껏 건물 몸체가 온전히 남아 있는 게 신기할 지경이었습니다.”

‘내가 널 살리겠다’ 결심하고, 계절이 네 번 바뀌었다. 그동안 가장 추운 날도 가장 더운 날도, 단 하루를 쉬 적이 없다. 몸무게가 8kg이나 줄었다. 마스크가 새까맣도록 쇳가루와 목은 먼지를 털어낼 때엔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육체적으로도 그랬

지만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컸어요. 명이 한 이삼 십 년은 준 것 같아요.” 힘없이 내뱉는 그의 말에 그간 홀로 짊어진 고단함과 무게감이 느껴진다.

조양방직은 일제강점기인 1933년, 강화도의 실업가 홍재묵과 홍재용이 세웠다. 조양방직이 문을 열면서 강화의 직물산업은 가내수공업에서 기계화로 바뀌면서 몸집을 키웠다. 전국에서 사람이 모여들고 직물 짜는 기계가 밤늦도록 돌아갔다. 하지만 1990년대 현대식 섬유 공장이 생기고 신소재 섬유가 나오면서, 강화 직물산업은 내리막길을 걷는다. 조양방직도 가동을 멈추고 제 기능을 잃은 채 멈춘 시간 속에 갇혔다. “세월의 풍파에 스러지던 건물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나를 만났어요. 여기서 잘 기다들어 손질하면 진화하지만 아니면 폐허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먼지를 탁탁 털고 묵은 때를 벗겨내니, 감춰져 있던 거대한 예술 작품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다시 태어난 조양방직의 새 이름은, 그래서 ‘신문리 미술관’이다.



조양방직 '신문리 미술관'은
이용철 씨가 20여 년간 중국과 유럽
에서 찾은 골동품으로 채워져 있다.

과거의 영광,
꿈꾸다

공사가 아닌 '발굴'하는 심정으로 망치질을 했다. 흙 한 톨도 그대로 버려지
는 일 없도록, 원형 그대로를 살려둔 채 비우고 채우는 과정이 이어졌다.

“건물이 마치 살아 있는 유기체처럼 느껴졌어요. 이곳을 만지면서
무언가를 부수고 바꾸는 일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어디 하나 애정 어리지 않은 곳이 없지만, 가장 마음이 가는 건 입구 가까
이에 있는 귀퉁이 벽면이다. 공사 도중 허물어져가는 이 벽을 발견한 순간,
바로 울타리를 쳐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했다. 그는 이 공간에 '본래 건
물을 만든 이와 파괴적인 시간이 낳은 예술품'이라고 의미를 부여한다. “그
저 바라만 보고 있어도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요. 몇 십 억짜리 그림이
안 부러워요.” 한 예술가는 지금까지 본 전시 작품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술품'이라고 감탄했다.

느닷없이 서울에서 나타난
한 사내가 강화의 '역사'를 살렸다.
그가 없었더라면 조양방직도
그 주변을 둘러싼 빌라촌과 같은
처지가 될 뻔했다.



조양방직의 벽면 '본래 건물을 만든 이와
파괴적인 시간이 낳은 예술품'



강화 직물산업은 1970년대 화려한 시절을 보냈다. 조양방직을 시작으로
크고 작은 직물 공장이 밤낮으로 움직이면서, 멋쟁이들의 필수품이었던
웹블리 넥타이와 '강화 소창'을 쏟아냈다. 하지만 부침의 세월을 숨차도록
넘은 끝에, 기계는 멈추고 사람은 모두 떠났다.
“살아생전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옛 건축물은 본 적이 없어요. 이 일대가
계속 호황을 누렸다면, 이 건물은 살아남지 못했겠지요.” 모든 일에는 흥망
성쇠가 있기 마련이다. 모순적이지만 내리막이 있었기에 속도가 앓아갈
뻔한 풍경을 지금껏 붙잡을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새 숨을 튼 조양방직
은 직조기가 설 새 없이 돌아가던 그 옛날 강화의 영광을 다시 꿈꾼다.

섬과 섬 사이

바다를 달리다

여름이 익어가면, 마음은 ‘가지 않은 길’을 찾는다.
섬과 섬 사이 푸른 바다 한가운데를 달려, 새로운 길은 다른 세상을 연다.
지난 5월 28일, ‘큰물’ 덕적도와 소야도를 잇는 다리가 놓였다.
하나로 이어진 두 섬은, 비슷한 듯 다른 매력으로 깊고 은밀하게
마음에 파고든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대행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덕적도와 소야도를 잇는 연도교(드림룩스)



통통배 타고
가던 길

새벽 여섯 시, 소년은 부엌에 밝아오는 새벽빛을 따라 집을 나섰다. 섬에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 다시 섬으로, 꼬박 세 시간이 걸려 겨우 학교에 닿았다. 온 세상이 잠든 시간 아무리 서둘러도 지각하는 날이 하루걸러 하루. 해무라도 끼는 날에는 야속한 바다를 탓하며 발을 동동 굴러야만 했다. 덕적도에서 소야도로 가는 버스를 운행하는 김연기(63) 어른은 소야도가 고향이다. 그 옛날 배 타고 노 저어 덕적도에 있는 중학교에 다니던 기억이 아직 도렷하다.
덕적도 남동쪽에서 불과 600m, 덕적 본섬의 치맛자락 뒤로 몸을 숨기고 있는 소야도는 ‘섬 속의 섬’이었다. 1998년 소야 분교가 폐교하면서, 어린 초등학생들까지 날마다 덕적도에 있는 본교로 통통배를 타고 다녀야 했다. 다 지난 얘기다. 지난 5월 28일, 공사를 시작한 지 3년여 만에 연도교가 놓이면서 두 섬이 하나로 이어졌다. 배 타고 가던 섬을, 이제 차로 싱싱 달린다. “이 가까운 길을 오랫동안 참 힘들게도 다녔어. 이제, 한 섬이나 다름없지 뭐야. 우리 고향 땅이 넓어진 것 같아. 허허.” 선착장에서 시동을 건 버스가 굽이굽이 바다를 감도는 섬 길을 따라 일을 나선다.



덕적도 서포리 해변



아직
순수한 섬



덕적도 능동자갈마당

덕적도에서 소야도로 가는
버스를 운행하는 김연기 어르신



버스가 손님을 가장 많이 내려놓는 곳은 떼뿌리 해변이다. 평일 오후인데도 해변에는 유유자적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 많다. “소야도에 세 번 왔는데, 오늘 와보니 다리가 놓였네요. 붓비지 않아서 좋았는데, 이제 가까워져서 사람이 많이 찾겠어요.” 가보라고 권하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혼자만 알고 싶은 비밀스러운 낙원. 하지만 아직 여느 해변보다 한적해, 여행자들이 꿈꾸는 섬의 순수함을 누릴 수 있다.
“죽노골에 꼭 가보세요. 참 좋네. 진짜 깨끗해.” 소야도에 처음 와보았다는 관광객 한 분이 길을 권한다. 떼뿌리에서 서쪽으로 이어진 숲길을 따라 느릿느릿 걸었다. 한 10분 쯤 갔을까, 점점 커지는 파도 소리 따라 죽노골에 이르렀다. 해변은 아담하지만 모래 결이 곱고 물빛이 아름답다. 영화 ‘연애소설’을 여기서 촬영했다. 주인공들이 모래 위에 쓴 ‘지환 경희 수인 여행 기념’이란 글씨는 지워졌지만, 그들이 남긴 사랑의 여운은 여전히 파도와 함께 물결친다.



맛으로
섬을 기억하다

김금미 씨의 손맛이 깃든,
덕적도의 ‘I Food’ 간재미찜

‘예그리나’의 김진용, 김금미 씨 부부



소야도 떼뿌리 해변
혼자만 알고 싶은 비밀스러운 낙원

여행으로 허기진 배는 덕적도 선착장 앞에 있는 민박집 겸 음식점 ‘예그리나’에서 채운다. 김진용(52), 김금미(53) 씨 부부는 10년 전 육지에서 섬으로 와 오붓이 살아가고 있다. 부부는 덕적 바다와 땅에서 나는 식재료를 음식을 만드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그래서 음식도 엇비슷한 도시와는 다른, 섬에는 특별한 맛이 있다. 김금미 씨가 어제 막 개발했다는 해물라면을 한상 푸짐하게 차려낸다. 서해에서 나는 싱싱한 꽃게와 새우, 조개 등 큼직한 해산물이 보란 듯이 얹혀 있다. 우리 시가 ‘(Island) Food 프로젝트’ 덕적도의 맛으로 개발한 간재미찜은 섬의 대표 음식으로 손색이 없다. 해풍에 말린 쫄깃한 간재미와 채소의 아삭한 식감이 일품. 그야말로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다.

사람들로 북적이던 소야도 선착장은 이제 한적하다. 인적이 드문 대합실과 개찰구에는 정적이 흐른다. 육지에서 소야도로 바로 달려오던 여객선 한 척이, 다리가 놓인 후로 더 이상 이곳에 닿을 내리지 않는다. 머지않아 다른 배들도 이 섬을 잇을 것이다. 갈매기들이 갈 곳을 잃은 듯 담벼락 위에 우두커니 앉아 있다. 하늘의 빛이 달라지고 있다.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가까워졌다. 햇살이 사그라진 바다 위로 노을빛이 스며든다.

덕 적 도 + 소 야 도

두 섬, 한 품에 안다

굳이 멀리 동쪽까지 갈 필요가 없다. 육지에서 뱃길로 단 1시간, 서쪽 바다가 맞나 싶을 만큼 모래가 곱고 물빛이 맑다. 인천의 대표적인 여름 휴양지인 덕적도에서 소야도까지 다리가 놓이면서, 즐거움이 두 배로 늘었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대행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서포리 해변

보는 순간, 감탄사가 절로 난다. 3km에 걸쳐 펼쳐진 모래사장과 300년 세월이 녹아든 군청의 소나무 숲. 과연 서해 최고의 바닷가로 손꼽힐 만하다. 간조 시에도 물이 거의 빠지지 않고 갯벌이 드러나지 않아, 마치 동해의 여느 해변인 듯 착각을 일으킨다. 비조봉(292m)은 오래된 적송이 울창해 등산하기 좋다. 전망대에 서면 섬과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이 순간 정지 화면처럼 펼쳐진다.

능동자갈마당

진리 선착장에서 북쪽으로 8km 떨어진 바닷가. 모래 대신 크고 작은 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어 걷는 재미가 특특하다. 차르륵 차르륵~ 자갈 위를 구르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이야기꽃을 피우기에 안성맞춤이다. ‘덕적도는 갯벌과 자갈이 깔린 해변과 300살이 넘는 소나무가, 한국의 잘 알려진 아름다움과 경쟁할 수 있을 만한 고유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한 CNN의 평가는 역시, 옳다.

덕적도 성당

‘서해 낙도의 슈바이처’라 칭송받는 최분도(베네딕트 즈웨버, 1932~2001) 신부. 그의 기념비가 서포리 해변 앞에 세워져 있다. 1966년 4월 덕적도로 온 그는 전기와 상수도를 설치하고, 김 양식장을 만드는 등 외딴섬에 ‘문명’을 들였다. 특히 병원선 ‘바다의 별’을 만들어 덕적도 바다를 돌며 섬사람들을 보듬었다. 덕적도 성당에는 그가 아픈 사람들을 돌보던 옛 ‘복자 유베드루’ 병원 건물이 남아 있다.

덕적도 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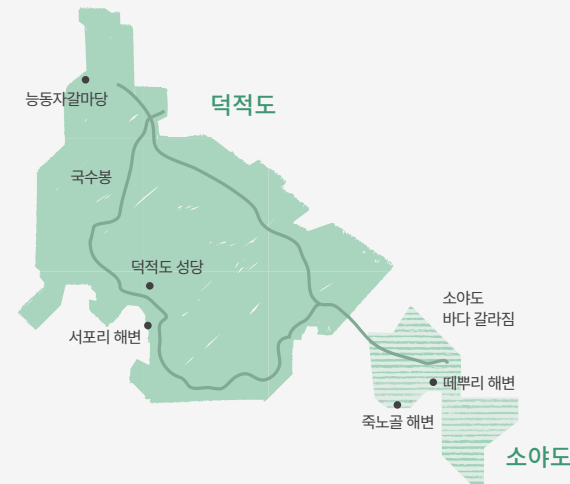
유인도 8개와 무인도 34개로 이루어진 덕적군도의 어미 섬, 덕적도. 이 섬의 팔 할은 숲이다. 섬 전체를 둘러싼 숲은 금방이라도 온 세상에 푸른 물을 퍼트릴 것만 같다. 해안을 따라 웅기종기 모인 작은 집들이 평화롭고 서정적인 풍경을 연출한다. 저 멀리 덕적도에서 가장 높은 국수봉(313.8m)이 의젓한 자태로 섬을 아우른다.

소야도 바다 갈라짐

소야도는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신비의 섬이다. 가섬과 간대섬 사이 500m, 간대섬과 물푸레섬 사이 800m, 소야도와 뒷목섬 사이 200m 구간에서 바다 갈라짐 현상이 나타난다. 다른 지역과 달리 바닷길이 뚜렷하고 여러 개의 섬이 바닷길로 연결되는 특징이 있다. 길을 걸으면 울퉁불퉁한 바위들이 발걸음을 느리게 붙잡지만, 그 투박하고 거친 느낌이 싫지 않다. 간조 시간은 국립해양조사원(www.kho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떼뿌리·죽노골 해변

소야도 큰말 서쪽에 있는 ‘떼뿌리 해변’은 섬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바닷가다. 모래밭이 넓고 완만해 물 참에 물놀이하기 좋다. 또 캠핑장이 넓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휴식처로 모자람이 없다. 이용료는 단 1만원. 이 가격에 바다를 빌리는 게 미안할 정도다. 곁에 있는 죽노골 해변은 아담하지만 물빛이 맑다. 계곡에서 흐르는 시원한 물이 모랫길을 만들면서 바다로 이어진다.



섬으로 가는 길

인천항 여객터미널에서 덕적도까지 쾌속선을 타면 1시간 10분, 대부항에서 차도선을 타면 1시간 50분 걸린다. 선착장에 공영버스가 대기하고 있어 섬을 여행하기 좋다. 덕적도에서 다리 건너 소야리와 큰 동네를 오갈 수 있다.

문의

덕적면사무소 ☎ 899-3710 / 인천항 여객터미널 ☎ 1599-5985 /

고려고속웨리 ☎ 881-0072 / 대부해운 ☎ 886-7813 / 덕적도 예그리나 민박 ☎ 831-8550





여름밤, 옥상에서 무더위를 날리자!

찌는 듯한 낮 더위가 한풀 꺾이는 여름밤, 야외에는 선선한 밤공기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시끌벅적 흥겨운 분위기의 노점이나 테라스 카페도 좋지만, 특별한 여름밤을 보내는 데는 루프톱을 빼놓을 수가 없다. 호텔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프라이빗한 낭만을 즐길 수 있는 도심 한복판의 루프톱을 찾아봤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복잡한 도심 속의 한줄기 여유

카페 머그
위치 남동구 예술로 126(Link 126 건물 6층) /
시간 오전 10시~다음날 오전 1시 / 주차 건물 지하 / 문의 ☎ 1800-8136

세련된 건물 옥상이 이렇게 편안하고 색다른 공간으로 꾸며져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알록달록 폭신한 의자와 감성 듬뿍 담긴 텐트, 마음을 포근하게 해주는 노란 조명들이 달달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루프톱 카페라는 안내를 제대로 한 적도 없는데, 입소문을 타고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해진 ‘카페 머그’. 이곳은 카메라를 들이대는 족족 그림이 되는 곳이라 젊은 세대들에겐 한번쯤 인증샷을 남겨야 하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 카페는 ‘젊은이들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이 콘셉트입니다. 그래서 간혹 버스킹 공연을 진행하지요. 보는 라디오 방송을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카페 주인 양대성(38, 산본동) 씨는 지난 월드컵 경기 때는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 손님들과 축구경기를 보면서 응원전을 펼치기도 했다고 설명한다.

옥상 위를 타고 흐르는 미풍과 달콤시원한 실타래 빙수가 어우러지면 여름 더위쯤은 잠시 안녕을 고할 수 있는 곳 ‘카페 머그’. 멋진 뷰를 뽐내는 화려한 루프톱은 아니지만, 북다북다 젊은이들로 가득 찬 로데오 거리 위에 이토록 여유롭고 한적한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된다. 바쁜 일상은 가라, 여기 ‘쉽~이 있다.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어 가슴 가득히 하늘을 끌어안을 수 있다. 울창한 초록 나무와 살짝 비껴 올라간 기와집 처마의 아름다움이 마음을 앗아가면 여름 더위 따위는 먼발치로 물러나 앉는다. 한옥의 고즈넉한 풍경은 여행지에 놀러 온 듯 기분 좋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인천향교와 인천도호부청사를 정면으로 마주한 루프톱 카페 ‘투썸 플레이스’. 이곳에서 한옥을 내려다보는 느낌은 여느 한옥 풍경과는 사뭇 다르다.



그림 같은 풍경, 그리고 한기로운

“손님들이 그러더군요. 여기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액자로 만들 수 없을 만치 아름답다고. 여름에는 시원한 초록, 가을엔 울긋불긋 단풍이 일품이랍니다. 눈이 소복하게 쌓이는 겨울은 또 어땠고요. 아마 인천도호부청사를 방문한 사람은 많아도 위에서 전체 모습을 내려다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경치에 반해 폐가를 선했던 사들이고 근사한 루프톱 카페로 단장했다는 점주 오주영(50, 학익동) 씨. 아름다운 풍경을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어서 더없이 좋단다.

근처에 인천문학경기장이 있어 경기가 끝나면 SK와이번스 선수들이 단체로 카페를 찾는다. 덕분에 카페 1층에는 선수들의 사인볼이 줄지어 진열되어 있다. 여름철 대표 메뉴는 아무래도 빙수. 입안 가득 퍼지는 풍미와 청량감이 여름밤 무더위를 삼시간에 녹여준다.

투썸 플레이스 인천문학점

위치 미추홀구 매소홀로 590
시간 오전 8시 30분~오후 11시 30분
주차 건물 1층 및 뒤편
문의 ☎ 227-0220



C27

위치 중구 차이나타운로44번길 19
시간 오전 10시~자정 (연중무휴)
주차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 또는
북성동주민센터 주차장
문의 ☎ 070-8872-1727

ROOFTOP 03

발아래 차이나타운, 머리 위엔 별자리

층층이 멋스러운 계단에 걸터앉으니 차이나타운 거리가 눈앞에 가득 펼쳐진다. 붉은 노을에 젖은 차이나타운. 그중에서도 붉음이 돋보이는 거리 입구의 까만색 건물 ‘C27’ 루프톱. 층계마다 색다른 콘셉트의 인테리어를 감상하다 맛닥뜨리는 옥상, 비밀의 공간처럼 호기심을 자극한다. 특히 루프톱엔 다락방을 연상케 하는 별도의 공간이 설치되어 있어, 천체망원경으로 별자리를 관측할 수 있다.



헤이루체

위치 중구 차이나타운로51번길 19-1
시간 오전 11시~오후 9시
주차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
문의 ☎ 010-5400-0897

발아래는 골목길의 붉은 흥겨움이, 머리 위로는 반짝반짝 별들의 공연이 한여름 밤의 로맨틱을 선물한다.

“건물 외관이 독특해서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루프톱이 있는 줄 몰랐어요. 호기심에 올라와봤는데, 이런 멋진 공간이 숨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다가오는 8월이면 엄마가 된다는 김효정(29, 항동) 씨. 차이나타운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어울리는 이 공간이 독특하다며, 출산하기 전까지 종종 찾을 생각이란다.

‘C27’은 맛이 깊은 27가지의 프리미엄 치즈케이크를 판매하는 전문점으로 유명하다. 가벼운 디저트 와인과 맥주도 판매하고 있어 한여름 밤의 데이트 코스로 적격하다.



ROOFTOP 04

탁 트인 하늘과 잔잔한 풍광

저 멀리 어렴풋한 바다 속으로 노을이 잠수를 시작한다. 때맞춰 예쁜 조명이 하나둘 자태를 드러낸다. 자연의 빛과 속세의 빛이 자리바꿈을 하는 시간이다. 저녁 바람도 줄지어 행진에 나선다.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고요해진다. 도심 속의 전원, 인천항이 손에 잡힐 듯 한눈에 들어오는 이곳은 차이나타운 삼국지 벽화 골목 끝에 자리 잡은 ‘헤이루체’. 카페 주인의 정성과 수고가 물씬 느껴지는 아담한 정원 분위기의 루프톱. 바라보는 이의 마음이 소박하고 정겨워진다. 루프톱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파란색 유리 폴딩도어에 비치는 풍경도 특이하다.

‘헤이루체’는 하얀 벽과 파란 창틀, 지중해풍의 외관이 눈길을 끈다. 1층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진 갤러리 ‘북성동’으로 운영되고 있어, 근사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도 있다. 넓은 주택 두 채를 개조해 만든 덕분에 갤러리 공간은 숨바꼭질하듯 작품을 감상하게 돼 있다. 이 또한 색다른 즐거움이다.

한적한 동네로 마실 나온 듯 편안한 안식처를 찾는다면, 헤이루체 루프톱으로 가보자. 음료를 주문하지 않고도 1층의 멋진 갤러리와 시원한 하늘을 감상할 수 있다.



INCHEON
PENTAPORT ROCK
FESTIVAL

GLASTONBURY FESTIVAL
OF CONTEMPORARY
PERFORMING ARTS

VS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영국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

대한민국 락 페스티벌의 시작 12년 이어온 젊음과 열정

오는 8월 10일에서 12일, 송도 달빛축제공원을 뜨겁게 달굴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올해로 12회째를 맞는다. 1999년 ‘트라이포트’의 도전과 좌절 이후 2006년 새롭게 출발해 올해까지 74만 명이 넘는 관객들이 페스티벌을 즐겼다. ‘펜타포트’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야외 음악 축제인 영국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의 전통과 규모에는 아직 못 미치지만 차근차근 역사와 이야기를 쌓아가며 고유의 개성을 만들어가고 있다.

글 김윤미 대중문화 저널리스트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셔터스톡

락 페스티벌의 상징적 도시 인천 송도국제도시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열리는 장소이자 대한민국 음악 페스티벌 역사에서 중요한 지점은 다름 아닌 송도국제도시다. 많은 음악팬들의 기대 속에 화려한 라인업으로 출발했던 국내 페스티벌사의 ‘안타까운 전설’ 트라이포트 락 페스티벌의 첫 시작이 바로 송도국제도시에서였다.

현재 펜타포트 파크(달빛축제공원) 역시 주변 지역이 변화하진 않지만 1999년 당시 트라이포트가 열렸던 송도 유원지 인근 행사장 주변은 더욱 황량했다. 하지만 그해 유례없는 폭우에도 첫날 공연의 열기만큼은 여느 페스티벌 못지않게 뜨거웠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필자 역시 애시(Ash), 드림 시어터(Dream Theater), 딥 퍼플(Deep Purple) 등 세계적인 록밴드들의 라이브를 자유로운 분위기의 야외에서 즐긴다는 흥분 때문에 쏟아지는 비조차 잊을 정도였다.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경쟁적으로 열렸던 유사 페스티벌 가운데 입장료 대비 라인업과 공연 운영 능력 등 ‘뛰어난 가성비’로 음악팬들의 선택을 받으며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INCHEON PENTAPORT ROCK FESTIVAL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기간 7월~8월 중 금~일요일 3일간. 올해는 8월 10일~12일 개최
장소 송도 달빛축제공원(펜타포트 파크)
관객 2006년 첫해 2만8,500명을 시작으로 2015년 9만7,845명, 지난해 8만1,000명
역사 1999년 국내 최초의 야외 음악 페스티벌로 야심차게 기획된 ‘트라이포트’(7월 31일~8월 1일, 송도)가 엄청난 폭우 속에 첫날만 겨우 열리고 취소된 이후, 7년 만에 ‘펜타포트’가 새롭게 첫발을 내딛은 후 한 해도 빠짐없이 개최되고 있다.

V S

GLASTONBURY FESTIVAL OF CONTEMPORARY PERFORMING ARTS

영국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

기간 6월 말 5일간
장소 영국 잉글랜드 남서부 서머셋주 필턴 마을 워시 농장
관객 1970년 첫해 1,500명을 시작으로 매년 약 20만 명
역사 히피 문화의 영향으로 서머셋주 필턴의 한 농장에서 단돈 1파운드의 입장료로 시작된 이래 세계 음악팬들이 가장 가보고 싶어 하는 야외 음악 페스티벌로 자리매김해왔다. 1972~1978년 7년간 열리지 않았고 이후 4~5년마다 휴식을 갖고 있다.



트라이포트는 단 하루의 일장춘몽으로 끝났고, 다시 페스티벌의 역사가 시작될 때까지 7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시작은 역시 송도국제도시였고, 이후 두 차례 장소가 바뀌고 지금의 장소로 돌아온 게 5년 전이다.

펜타포트는 트라이포트 시절부터 비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실제 ‘장화가 필수’인 진흙 바닥에서의 공연 관람도 그리 특별한 광경은 아니었다. 다만 펜타포트 파크가 조성된 후에는 인공 잔디나 배수 시설들이 잘 갖춰져 한결 쾌적한 관람이 가능해졌다.

인천 대표 축제 넘어 세계적 페스티벌로

펜타포트는 일찌감치 인천 대표 축제로 떠올랐다. 2011년부터 6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유망 축제로 선정됐다. 또 국내를 넘어 세계에서 인정받는 페스티벌이 됐다. 영국 매거진 ‘타임아웃’이 선정하는 ‘꼭 가 봐야 할 전 세계 페스티벌 50’에 3년 연속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관객이 페스티벌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여전히 ‘라인업’이 꼽히지만, 페스티벌 그 자체의 명성과 신뢰는 라인업과 상관없이 ‘다치고 예매’를 부르는, 주최 측이 지향해야 할 바다. 여름 록 페스티벌 중 유일한 ‘생존자’인 펜타포트는 일찍부터 ‘블라인드 티켓-얼리버드 티켓 무조건 예매족’인 마니아들이 유독 많은 것으로 유명하다. 이는 때로 ‘라인업이 좀 약하다’ 싶을 때도 있었지만, ‘록 페스티벌’에 걸맞은 뮤지션들을 꾸준히 무대에 올리고 운영 방식과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팬들의 신뢰도를 높인 덕분이다.



세계 음악팬들의 로망 ‘글래스톤베리’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은 대중음악 외에도 서커스, 전시회, 연극, 코미디, 댄스 등 다양한 공연이 열린다. 출퇴근이 가능한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과는 달리 티켓이 5일권 한 종류인데다 관객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기 때문에 텐트에서 묵는 캠핑이 일반적이다.

세계 음악 페스티벌 중 단 하나를 꼽는다면? 미국의 ‘SXSW(사우스바이 사우스웨스트)’부터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에 다 요즘 뜨는 EDM 페스티벌까지 개인의 취향에 따라 정말 여러 이름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럼에도 ‘단 하나’라면, 이 이름을 떠올리는 음악팬이 많을 것이다. 드넓은 캠핑장에 수많은 텐트들, 눈에 띄는 피라미드 무대에 끝도 없이 펼쳐진 객석 폴샷, 장화를 신고 흙탕물을 튀며 진흙 바닥을 뛰면서도 활짝 웃고 있는 사람들... 음악 페스티벌 하면 연상되는 이 모든 이미지의 출처는 어찌면 이곳일지 모른다. 바로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 시작한 한 젊은 농장주의 소박한 마음이었고 그 정신이 훼손되지 않은 채 규모와 이슈가 엄청나게 커졌다.

1999년부터 작년까지 글래스톤베리만 무려 13차례 다녀온 ‘페스티벌 제너레이션’의 저자 김지숙 씨는 “글래스톤베리는 어찌 보면 즐기는 게 아니라 고생이 될 수도 있다. 날씨 안 좋을 때도 많고 제대로 씻기도 힘들다. 근데 볼거리, 즐길 거리가 정말 많고 참가 팀만 1,000개다. 모든 장르의 음악을 다 들을 수 있고 스펙터클한 체험을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현장에 있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자랑거리가 되고 두고두고 추억이 되는 글래스톤베리. 앞으로 펜타포트 역시 더 깊고 진한 역사, 더욱 알토란 같은 성장 이야기를 써 내려가게 될 것이다.



경계에 꽃피울 ‘신여성’

유영이

사진 김보섭 | 글 유동현



2년 전 어느 작은 공연장에서 그와 처음 인사를 나눴다. 그를 보자마자 웬일인지 ‘모던’, ‘계몽’, ‘신여성’ 등 개화기 단어가 떠올랐다. 인물 중심 사진에서 배경은 큰 의미가 없다. 그런데 김보섭 사진가는 장소에 유난히 집착한다. 유영이(32) 씨를 취재하기로 하고 그를 어느 공간에 세울까 고민했다.

올 장마가 시작된 날, 장대비를 뚫고 그를 동구 창영동 영화초교 옛 본관동에서 만났다. 인천영화초등학교는 1892년 4월 미국 선교사 존스 부인이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학교다. 박공지붕을 한 3층짜리 양증맞은 이 작은 건물은 한 세기 전 영화학당의 빨간 벽돌을 그대로 품고 있다. 유영이 씨에게 느꼈던 첫 이미지를 놓지 못하고 그를 학당으로 오라고 했다. 나무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100년 전 시간의 문을 노크했다.

그는 가좌동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건설 플랜트 설계사였다. 어려서부터 설계도면을 그리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자랐다. 건축가가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초등학교 시절 미술대회 나갔다가 하면 큰 상을 받아왔다. 그는 예술중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부모님은 예체능계 진학을 완강히 반대하셨다. 일반 여중으로 입학한 후 과학 과목에 빠졌고 여고 시절엔 과학영재로 뽑혀 주말마다 별도 수업을 받기도 했다. 전교 1등을 도맡아했기 때문에 당연히 의대 진학이 꿈인 줄 알았다. 진로를 ‘조경’으로 바꾸었다. 이번엔 부모님에다 담임 선생님의 반대까지 이겨내야 했다. “조경은 도시를 총체적으로 디자인하는 종합예술입니다. 특히 사람, 나무, 땅 등 살아 있는 생명을 다루는 일이에요. 그 공간에 터 잡고 살아왔거나 살아갈 못 생명체들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여러 전문 분야와 함께하는 매력 있는 고난도 예술입니다.”

그의 졸업 작품은 ‘화수·북성·만석부두 재생 프로젝트’였다. 만석부두와 백령도 등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했던 기억이 밑바탕이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국제학생공모에 출품돼 입선을 하기도 했다.

서울대 조경학과를 나와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에서 전시기획을 공부하다 이탈리아 밀라노 공대로 유학, 전시디자인을 전공했다. 그곳에서 무엇을 배웠을까. 각론을 물었는데 총론이 돌아왔다. 협업하는 법과 빨셈의 디자인. ‘메이드 인 이탈리아’의 힘은 각자의 전문성, 즉 장인 정신을 서로 인정한 협업에서 나온다. 그 과정을 거친 작품은 한 켠 한 켠 쌓아올린 역사의 큰 맥락 속에 ‘정수’를 뽑아내는 빨셈의 디자인, 즉 장식을 줄이고 ‘진액(津液)’을 뽑아내는 연습을 오랫동안 해온 그들의 미학에서 비롯되었음을 전한다. 그는 밀라노엑스포 한국관 TF전문위원으로 3년간 활약하다, 2016년부터 인천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 기획홍보팀에서 일하고 있다.

취재 다음 날 쪽지 하나를 보내왔다. “강화도 동막리에 사는 함민복 시인의 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저는 이 말처럼 다양한 분야의 진짜를 만나 그들과 멋진 도시, 문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영화학당은 이 땅의 작은 등불이었다. 19세기 말 우리나라 최초의 초등 신교육을 시작하며 새로운 빛을 비추기 시작했다. 그날 사진 촬영은 영화학당 맨 꼭대기 뽕죽 다락방에서 진행되었다. 사진가는 유영이 씨에게 편하게 구두를 벗을 것을 요구했다. 그는 서슴없이 맨발로 섰다. 작은 창에서 들어오는 빛 한줄기가 그의 몸을 환하게 비추었다. 관습과 계율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100년 전의 신여성이 오버랩되었다.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모던 인천’을 창조할, 도시 개발 분야를 계몽해야 할 신여성이 그곳에 서 있었다.



CULTURECALENDAR

07

01

선데이 콘서트-
이한나 비올라 독주회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4시
전석 1만원
☎ 289-4275

03

어린이 뮤지컬
‘치카치카뽀치맨’

인천어린이과학관 공연장
~7월 15일까지 공연
화~금요일/ 낮 12시 50분
토·일요일/ 오전 11시, 오후 1시, 2시
전석 2만원
☎ 822-8229

05

제23회 남구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전석 무료
☎ 880-4296

2018 인천뮤직 학앳농크-
비트만의 관점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7시 30분
전석 5만원
☎ 289-4275

06

황금토끼-인천시립합창단
‘오페라 아리아의 밤’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무료
☎ 420-2742

연극 ‘도처의 햄릿’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7월 7일까지 공연
6일/ 오후 7시 30분, 7일/ 오후 3시
전석 1만5,000원
☎ 500-2000



07

제2회 인천사랑 합창경연대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전석 무료
☎ 440-2442

황금토끼-케이엠아츠의
‘브라스와 팼페라의 낭만 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무료
☎ 420-2051

최주용 오르간 독주회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7시 30분
전석 2만원
☎ 289-4275

제26회 전국무용경연대회-
학생부

남동소래아트홀 대공연장
오전 10시
전석 무료
☎ 865-5474

07

어린이 뮤지컬 ‘뚝딱맨’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7월 8일까지 공연
7일/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30분
8일/ 오전 11시, 오후 2시
VIP석 5만5,000원, S석 3만3,000원
☎ 02-555-0822~3



IAP 콜라보 스테이지 VOL1
노선택과 소울소스X김윤희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오후 4시
전석 무료
☎ 760-1011

08

태선이 바이올린 리사이틀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초대
☎ 010-8684-9872

선데이 콘서트-
실내악 시리즈 3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4시
전석 1만원
☎ 289-4275

제26회 전국무용경연대회-
일반부

남동소래아트홀 대공연장
오후 1시~6시
전석 무료
☎ 865-5474

10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75회
정기연주회 ‘쇼스타코비치’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 1만원, S석 7,000원
☎ 1588-2341

13

캐나다 아트서커스-
서크 엘루아즈 ‘서커폴리스’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7월 14일까지 공연
13일/ 오후 7시 30분
14일/ 오후 2시, 6시
R석 9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 1588-2341

인천시립극단 배우열전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7월 15일까지 공연
13일/ 오후 7시
14, 15일/ 오후 3시
전석 무료(사전 예약 필수)
☎ 438-7775

가족 뮤지컬 ‘신데렐라’

남동소래아트홀 대공연장
오전 10시 15분, 11시 20분
일반 1만원, 단체 6,000원
☎ 387-9411

14

황금토끼-평북농요의
‘우리소리 한마당’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무료
☎ 420-2051

15

선데이 콘서트-에센시아 트리오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4시
전석 1만원
☎ 289-4275



17

가족 매직컬 ‘마술고양이’

인천어린이과학관 공연장
~7월 19일까지 공연
오전 11시, 오후 2시
전석 2만5,000원
☎ 205-2505

18

2018 커피콘서트 10th
더 브라스
칸타빌레 앙상블 ‘COOL’한
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전석 1만5,000원
☎ 1588-2341

20

뮤지컬 ‘명성왕후’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7월 22일까지 공연
20일/ 오후 8시
21일/ 오후 3시, 7시
22일/ 오후 2시
VIP석 14만원, R석 12만원, S석 8만
원, A석 6만원
☎ 1566-6551



스테이지 149-엠비규어스
댄스컴퍼니 ‘바디 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7월 21일까지 공연
오후 3시
전석 1만5,000원
☎ 1588-2341

바로크 삼총사와 함께하는
음악여행-알테 무지크 서울

부평 문화 사랑방
오후 7시 30분
전석 6,000원
☎ 505-5995

20

연극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인천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7월 21일까지 공연
20일/ 오전 10시 30분
21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전석 1만원
☎ 579-1150



21

황금토끼-
리여석 기타 오케스트라
‘여섯 줄의 하모니’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무료
☎ 420-2051

7080 콘서트 ‘동물원에 가자’

남동소래아트홀 대공연장
오후 3시, 7시
R석 3만원, S석 2만원
☎ 460-0560

감성 가족 뮤지컬 ‘미녀와 야수’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전석 3만원
☎ 010-4272-0002

IAP 콜라보 스테이지 VOL2
쌍쌍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오후 4시
전석 무료
☎ 760-1011

어린이 뮤지컬 ‘인어공주’

검단복지회관 공연장
낮 12시, 오후 2시, 4시
전석 2만원
☎ 031-238-0951

24



트라이보울 시리즈-
피아노 워크 2018

트라이보울 2층 공연장
~7월 28일까지 공연
24~27일/ 오후 8시
28일/ 오후 5시
전석 1,000원
☎ 831-5066

27

대배우 시리즈 1 ‘봄날’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7시 30분
전석 2만5,000원
☎ 500-2052



가족 뮤지컬 ‘해피한 하루’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7월 29일까지 공연
27일/ 오후 7시
28-29일/ 오후 1시, 4시
전석 1만원
☎ 010-7771-7136

28

우리 가족
토요일N클래식 시리즈 II
해천추범-성에 갇힌 사람들-
나무쟁버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5시
전석 6,000원
☎ 505-5995

이달의 展

제1회 세계 스케치 여행
‘자연과 인간의 하모니’
6월 26일~7월 2일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이계원 개인전

6월 23일~7월 6일
갤러리 지오

어울림전

6월 26일~7월 2일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 전시실

단디, 순간의 꽃

7월 3일~12일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제14회 인천 서예·캘리그리피전

7월 6일~12일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중앙·소 전시실

윤자선 개인전

7월 7일~13일
갤러리 지오

김민자·류지은, 그녀의 방(衍)

7월 17일~26일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문현진, 꿈꾸는 도자기

7월 17일~26일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

제4회 빛마중 사진연구회전

7월 20일~26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중앙 전시실

수형회전

7월 20일~26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인천 원더랜드전

7월 21일~8월 3일
갤러리 지오

제9회 아라희 작품전

7월 27일~8월 2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반쪽이의 상상력 박물관전

7월 19일~8월 19일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 전시실



뜨거운 도시를 식힐 7월의 공연

방학과 휴가가 있어 왠지 설레는 7월.
시원한 공연장에서 즐기는 다양한 감동의 공연이
여러분에게 색다른 추억 하나를 보태주지 않을까요?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퍼포먼스가 함께하는 한여름의 공연들로
휴가 못지않은 ‘힐링’을 한껏 누리세요.



러시아 정통 클래식 진가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75회 정기공연 ‘쇼스타코비치’

7월의 인천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의 주인공은 ‘러시아가 낳은 천재’라 불리는 쇼스타코비치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지휘자인 김경희의 지휘와 첼리스트 강승민의 연주를 통해 아름답고 신비로운 쇼스타코비치 작품의 진가를 느껴보세요.

문의 및 예매 art.incheon.go.kr ☎ 1588-2341
일시 7월 10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R석 1만원, S석 7,000원

다채로운 서커스의 향연 캐나다 아트서커스 서크 엘루아즈 ‘서커폴리스’

서커스와 연극, 뮤지컬풍의 음악과 댄스가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는 ‘서커폴리스’가 인천에서 막을 올립니다. 프리츠 랑 감독의 ‘메트로폴리스’에서 영감을 받은 ‘서커폴리스’는 화려한 테크닉과 아름다운 음악으로 관객들의 감탄을 자아낼 것입니다.

문의 및 예매 art.incheon.go.kr ☎ 1588-2341
일시 7월 13일 오후 7시 30분, 14일 오후 2시, 6시
장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R석 9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현대무용 감상에 입문해보세요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 ‘바디 콘서트’

2010년 초연 이후 현대무용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는 ‘바디 콘서트’가 다시 한 번 무대에 오릅니다. 힙합과 비보잉은 물론이고 발레와 현대무용까지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는 이들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할 것입니다.

문의 및 예매 art.incheon.go.kr ☎ 1588-2341
일시 7월 20일, 21일 오후 3시
장소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전석 1만5,000원



배우들에 의한 배우들을 위한 인천시립극단 ‘배우열전’

인천시립극단의 배우열전은 배우들이 직접 기획하고 연출한 작품을 직접 무대에 올리는 특별한 공연입니다. ‘재주 많은 삼형제’와 ‘헤비메탈 걸스’ 총 2편이 공연되는 이번 무대에서 배우들의 넘치는 에너지와 예술 세계를 느껴보세요.

문의 및 예매 art.incheon.go.kr ☎ 438-7775
일시 7월 13일 오후 7시, 14일과 15일 오후 3시
장소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전석 무료(사전 예약 필수)



금관 악기의 웅장함과 깊은 울림 2018 커피콘서트 10th 더 브라스 칸타빌레 앙상블 ‘COOL’한 콘서트

7월의 커피콘서트는 금관오중주 ‘더 브라스 칸타빌레 앙상블’의 공연입니다. 트럼펫, 호른, 트롬본, 튜바 등 금관악기 특유의 웅장하고 깊은 울림이 새로운 감동을 안겨줄 것입니다. 여름날의 무더위를 시원한 커피와 함께 날려보세요.

문의 및 예매 art.incheon.go.kr ☎ 1588-2341
일시 7월 18일 오후 2시
장소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전석 1만5,000원

NEWS
BRIEF

인천 변화상 한눈에… 사진 1만2,000여 장 공개



왼쪽, 1978년의 송림오거리(인천시 기록관 자료)
오른쪽, 2017년의 송림오거리(조기영)



우리 시의 최근 10년간 도시경관 변화상을 볼 수 있는 사진이 공개됐다. 시는 ‘도시경관 기록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달 안으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 사진은 1차 경관 기록화 사업 당시 촬영된 2008~2010년 사진 4,400장, 작년부터 최근까지 촬영된 사진 7,400장 등 총 1만2,130장이다.

근대 개항도시 역사를 담은 1980년대 이전 사진 330장도 포함됐다. 시는 이번에 공개되는 사진이 도시 변천사를 기록하는 소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상업적 용도가 아니라면 일반 시민도 자유롭게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의 : 시 도시경관과 ☎ 440-4782

제3회 인차이나포럼,
송도서 9월 6일~8일 개최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인차이나포럼(IN-CHINA FORUM)이 오는 9월 6일~8일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린다. 행사에는 ‘한중 바이오·뷰티’를 주제로 양국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전문가 등 500여 명이 참석한다. 바이오·뷰티 산업의 전망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신기술 발표회, 바이어 상담회 등을 열 예정이다. 한편 인차이나포럼은 인천시가 중국과 정책·경제·문화 등 다방면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2016년 6월 시작했다. 문의 : 시 중국협력담당관 ☎ 458-7294

에너지바우처 ‘한급신청’ 접수

우리 시는 에너지바우처를 미처 다 사용하지 못한 시민에게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한다. 대상자는 고시원·쪽방촌·여인숙 등 바우처를 쓰기 어려운 곳에 거주하거나 시스템상의 한계로 에너지 바우처를 쓰지 못한 시민이다. 오는 31일까지 환급 대상자임을 증빙하는 요금고지서 등 서류와 은행 계좌를 준비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편 에너지바우처는 취약 계층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연탄 등 에너지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인천에서 3만4,654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문의 : 시 에너지정책과 ☎ 440-4344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2개 부문 모두 수상

우리 시가 지난 6월 20일 ‘2018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 참가해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및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에서 각각 ‘우수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가 처음으로 최우수상에 선정된 ‘지산맞춤 사업’은 지난해 9개월간 진행된 인천시의 혁신 프로젝트 사업 중 하나다. 또한 4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한 ‘공시제’ 부문에서는 고용률(15~64세) 67.3%를 달성해 특·광역시 1위를 기록한 점과 2017년 일자리 목표인 9만3,000개를 초과해 113.4%를 달성한 점을 인정받았다. 문의 : 시 일자리경제과 ☎ 440-3263

인천~단둥 한중카페리 취항 20주년



인천과 중국 라오닝성 단둥시를 연결하는 한중 정기 카페리가 올해 취항 20주년을 맞았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6월 22일 인천항 제1국제 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단둥훼리 취항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해당 항로 선사인 단둥훼리가 초청한 임직원과 주거래 여행사·화주 등 비즈니스 파트너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인천~단둥 카페리는 1998년 7월 운항을 시작, 취항 첫째 1만7,000명이었던 여객 수가 2014년 17만4,000명으로 10배를 넘어섰다. 한편 단둥훼리는 취항 20주년을 기념해 오는 8월 단둥지역 한중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여행 상품 팸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 인천항만공사 ☎ 890-8000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

우리 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지난 6월 4일 시청 앞에서 ‘움직이는 관광안내소(Travel Bar)’ 개장 행사를 열었다. 시는 1t 트럭 2대를 개조해 120인치 LED 영상과 음향 시스템을 갖춰 이동 안내소를 제작했다. 안내소에는 관광안내사 3명을 배치, 관광정보 제공을 필요로 하는 곳 어디든지 찾아가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시와 관광공사는 인천공항·인천항·차이나타운·송도 등 관광객 밀집 장소에 이동 안내소를 배치해 인천 관광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문의 : 시 관광진흥과 ☎ 440-4053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 내년 3월 설치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가 내년 3월 인천에 설치돼, 그동안 항소심 재판을 위해 서울고등법원까지 다녀야 했던 인천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인천 지법에 ‘서울고법원외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고등법원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인천 원외재판부’에는 민사 2개와 형사 1개 재판부가 설립돼, 인천 시민들은 민·형사 항소심을 인천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문의 : 시 법무담당관실 ☎ 440-2294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 인천서 5년간 개최



우리 시가 올해부터 2022년까지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 5년 개최권을 확보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지금까지 1~2년 단위로 지역을 돌아가며 개최한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의 지역

순회 주기를 5년으로 확대하고, 첫 개최지로 인천을 선정해 지난달 14일부터 15일까지 송도에서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가 진행됐다. 첫 5년 개최권에 이어 이후 추가로 5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우리 시는 최대 2027년까지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우리 시가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 5년 개최지로 확정된 것은 한국을 대표하는 마이스 도시로서 성장 가능성에 높은 평가를 받은 때문으로 알려졌다. 문의 : 시 마이스산업과 ☎ 440-1513

실시간 주차정보 안내
39곳 → 220곳



우리 시는 7월 2일부터 220개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실시간 주차정보를 제공한다. 제공 정보는 실시간 주차 가능 면수, 주차장 위치, 이용요금 등으로 모바일 앱 ‘원내비’나 ‘인천시미추홀 주차정보’를 내려 받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2016년 공영주차장 39곳에서 사물인터넷(IoT) 활용 주차정보를 제공하다가 이번에 2단계 사업으로 대상 주차장을 대폭 확대했다. 문의 : 시 교통정보운영과 ☎ 440-1756

365일 도심부터 섬까지, 안전·깨끗하게 물 공급



우리 시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정수사업소 내진율을 높이는 등 대시민 서비스를 강화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2020년 내진율 100%를 목표로 올해 수산정수사업소와 부평정수사업소 9개 시설물의 내진율을 88%까지 높일 계획이다. 또 오는 9월까지 도·송수관 등 주요 맨홀 주변에 약 1,500개의 표지기를 설치해 태블릿PC로 맨홀에 대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

설물관리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

시민 누구나 무료 수질 검사를 신청해 받을 수 있는 ‘찾아가는 수돗물 안심 확인제’도 실시한다. 인천지역 노인정과 어린이집 등 노약자 이용 시설 100곳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특히 가뭄이 잦은 섬 지역이나 단수 지역에는 인천 남동정수장에서 생산한 미추홀참물 페트병을 연간 320만 병 이상 공급할 예정이다.

문의: 상수도사업본부 ☎ 720-2844

외국인 유학생들, 인천의료 홍보 서포터즈로 변신



우리 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지난 6월 26일 인천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2018년 인천의료 외국인 유학생 홍보 서포터즈’ 발대식을 열었다.

중국, 몽골, 파키스탄 등 6개국 13명의 외국인 유학생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는 인천지역 의료기관에서 체험한 내용을 인천관광공사가 개발한 웹사이트에 올리고, 이 내용을 SNS, 블로그 등을 통해 자국의 지인들에게 홍보하게 된다. 서포터즈 회원들은 7월~10월 4개월간 월 1회 지정된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매 월 정기모임을 가진다. 이를 바탕으로 인천의료 홍보 콘텐츠를 개발, 홍보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문의: 시 보건정책과 ☎ 440-2739

빛 공해 관리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 설정

우리 시는 빛 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본격 시행한다.

시는 강화·옹진을 제외하고 인천 8개 구(區)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정하고, 각 지역을 1종 녹지, 2종 생산녹지, 3종 주거지, 4종 상업지 등 4개로 세분화해 빛 공해를 관리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설치되는 신규 조명은 설치 전 인허가 단계에서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준수해 시·군·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 조명은 5년 안에 빛 방사 허용 기준 이내로 개선해야 한다.

한편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위반하면 행정처분과 함께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문의: 시 환경정책과 ☎ 440-3545

시내버스에 교통약자 배려석 설치

우리 시는 오는 8월 말까지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시내버스 1,861대에 교통약자 배려석을 설치한다. 좌석에는 이용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식을 부착하고, 좌석 유리창에는 교통약자 배려석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인다.

이를 통해 임산부를 포함한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및 영유아를 동반하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사업은 지역 기업(바로병원)의 사회공헌활동으로 후원을 받아 진행하며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700여 대를 설치했다.

문의: 시 버스정책과 ☎ 440-3944



검단신도시 홍보관 개관

인천도시공사는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 홍보를 위해 지난 6월 25일 홍보관을 개관했다. 서구 원당대로 929(서구영어마을 인접)에 지상 3층, 전시 면적 924㎡로 이루어진 홍보관은 인천도시공사·LH 사업단과 함께 위치하고 있다. 홍보관에는 검단신도시의 역사와 미래 도시 플랜을 보여주는 상설전시공간과 영상관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관람객이 기념사진을 찍고 희망 메시지를 남기면 검단신도시 이미지와 함께 감상할 수 있는 메모리얼 체험이 가능하며, 3층 전망대를 통해 검단신도시 전경을 조망할 수 있다. 문의: 인천도시공사 ☎ 260-5000



노숙인·쪽방주민 7월~9월 폭염 집중보호

우리 시는 주거 취약계층을 폭염에서 보호하기 위해 노숙인과 쪽방주민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시는 이달부터 9월까지를 집중보호기간으로 정하고 현장대응반 운영과 상담활동 등을 통해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노숙인들이 많은 곳에 임시쉼터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유관기관과 연계해 열사병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식중독 등 질환예방을 위해 쪽방촌 등에 대한 집중방역 활동도 벌일 예정이다.

문의: 시 공감복지과 ☎ 440-2933

남구, 7월 미추홀구로 개명

© 사진 류창현



우리 시는 올해 3월 공포된 ‘인천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근거, 7월 1일부터 남구 명칭을 미추홀구로 변경한다.

미추홀은 삼국사기에 나오는 인천 최초의 지명으로 ‘물의 고을’이라는 의미다. 미추홀의 발상지는 현재 남구 문학산 일대다. 동서남북 방위식 지방자치단체 이름이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이름으로 바뀌는 것은 전국 최초다.

한편 남구 명칭 변경에 따라 남부경찰서 이름도 7월부터 미추홀경찰서로 바뀌는 등 지역 내 다른 관공서 명칭도 잇따라 변경될 예정이다.

문의: 시 자치행정과 ☎ 440-2423

中 파워블로거, ‘인천관광’ 매력 전파

우리 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지난 6월 1일 시청 접견실에서 왕홍 3명을 인천관광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왕홍은 왕뤄홍런(網絡紅人)의 줄인 말로, 온라인 파워블로거를 뜻한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왕홍 3명은 엠마, 에키, 찐위첸첸으로 이들은 각각 모델과 배우 겸 아나운서, 뷰티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의 SNS 팔로워 수는 엠마 340만 명, 에키 260만 명, 찐위첸첸 137만 명으로 737만 명에 달한다.

시는 왕홍을 통한 관광 마케팅을 추진한다. 지역의 주요 관광지인 G타워와 씨사이드 레일바이크, 센트럴파크 등 송도국제도시 일원과 월미도

및 개항장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왕홍별 개인 SNS에 게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 현지에서 열리는 인천관광 홍보 로드쇼와 각종 인천관광 박람회를 통해 사회자 초청, 팬미팅 진행 등 다채로운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실시할 방침이다.

문의: 시 관광진흥과 ☎ 440-4042



인천시, 국제회의 개최 세계 24위 도약

우리 시가 국제협회연합(UIA·Union of Association)이 발표한 ‘2017 세계 국제회의 개최 순위’에서 세계 24위를 기록했다.

인천시는 2015년만 해도 50위권 밖의 도시로 분류됐지만, 2016년 30위권에 이어 작년에는

66건의 국제회의를 개최해 24위로 뛰어올랐다. 한편 시는 2020년까지 세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마이스 산업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실행할 방침이다.

문의: 시 마이스산업과 ☎ 440-1504



IFEZ NEWS

송도컨벤시아에 자율주행 안내 로봇 등장



송도컨벤시아가 7월 20일부터 국내 컨벤션센터 최초로 자율주행 로봇 ‘로미’의 안내 서비스를 시작한다.

전시안내 로봇 로미는 자신의 위치·방향을 인식해 자율주행하며, 복잡한 전시장·회의장 위치를 안내하고 본체 하단부의 고해상도 LCD 화면으로 전시·컨벤션 홍보 화면을 표출한다.

음성인식으로 간단한 대화도 나눌 수 있으며,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 등 4개 국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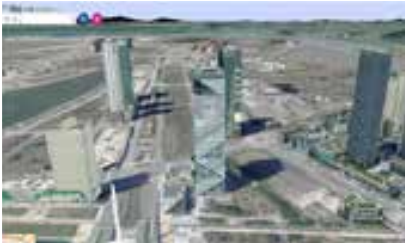
송도 6·8공구, 2020년까지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 6·8공구를 첨단 스마트시티로 조성한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송도 6·8공구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공사 실시계획 용역착수 보고회’를 갖고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해 2020년까지 스마트시티 기반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도 6·8공구에는 교통·방범 등 기존 서비스 외에 첨단 ICT(정보통신기술)를 적용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도로 표면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교통량 등을 파악하는 기존 루프검지기 방식의 단점을 보완한 ‘영상검지기 기반의 디지털 검지 방식’이 적용된다.

또 교통 CCTV와 관련해, 주야간 시간대에 품질 높은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자동영상감지기술 기반의 실시간 교통정보 수집관리 시스템이 구축된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전광판을 설치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 ‘3차원’ 기업 홍보 동영상 서비스



인천경제청이 전국 최초로 3차원 공간정보 서비스를 활용한 기업 등 홍보 동영상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세계 56개국 7만5,000여 명이 이용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 3차원 공간정보 서비스’에 기업 등의 동영상 서비스가 시작된다.

3차원 공간정보 서비스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에 대한 3차원 모델링 자료를 기본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2D, 3D, 항공·VR 모습을 PC 및 모바일 기기에서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곳에 기업 홍보 동영상 서비스가되면 IFEZ 투자유치 및 홍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도 워터프런트, 바다 접하도록 설계

인천경제청이 추진하는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사업의 실시 설계가 모두 마무리됐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워터프런트에 길이 950m의 수로와 교량 4개, 전망 데크, 수변 무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물놀이 데크 바닥은 수면보다 10cm 낮게 설계해 이용객들이 발을 담그고 쉴 수 있도록 했다.

총 사업비 6,200억원이 투입되는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은 송도국제도시의 호수와 수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7년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IMAGE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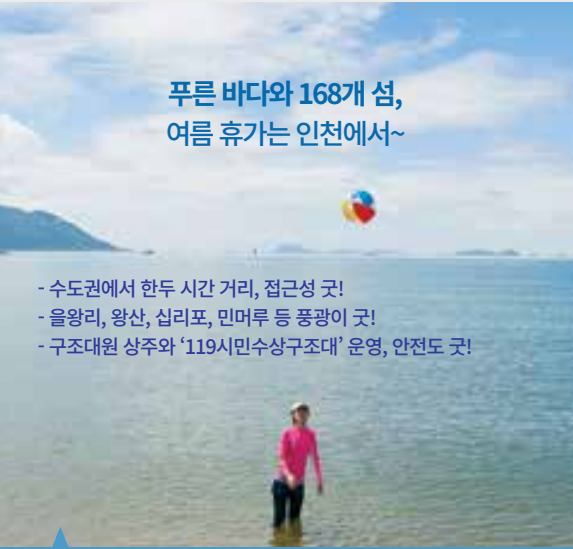


짧아진 봄,
길고 무더운 여름

벌써부터 폭염주의보
시원한 게 필요해!

#지구온난화로 중부 내륙까지 확산되는 #아열대기후.
보다 적극적인 #여름나기 솔루션 필요!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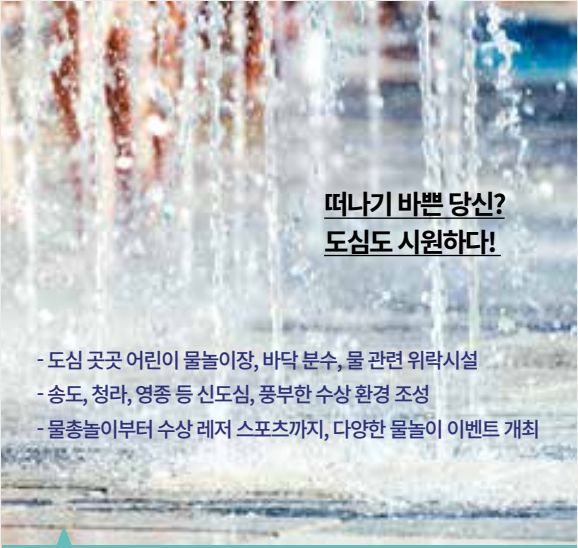


푸른 바다와 168개 섬,
여름 휴가는 인천에서~

- 수도권에서 한두 시간 거리, 접근성 굿!
- 을왕리, 왕산, 십리포, 민머루 등 풍광이 굿!
- 구조대원 상주와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안전도 굿!

올해 인천 중구부터 #해수욕장 관리·운영에 대한 조례를
시행해 #해수욕장 바가지요금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02



떠나기 바쁜 당신?
도심도 시원하다!

- 도심 곳곳 어린이 물놀이장, 바닥 분수, 물 관련 위락시설
- 송도, 청라, 영종 등 신도심, 풍부한 수상 환경 조성
- 물총놀이부터 수상 레저 스포츠까지, 다양한 물놀이 이벤트 개최

관계 법령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가 강화
#더욱 안심하고 #도심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03



인천에 산다는 건 행운! 인천이 가깝다는 것도 행운!

올여름엔
인천을 누리세요

천혜의 #서해 해수욕장과
해수를 활용하는 #미래 해양도시에서 만나는 여름!

04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37명의 시의원(지역구 33명, 비례 대표 4명)으로 구성된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가 7월 2일 개원식을 하고 4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제8대 시의회를 이끌어갈 시의원들의 역량과 프로필을 소개한다.



동구 남궁형
현) 더불어민주당중앙당 부대변인
전) 문재인대통령후보미래한국전략특보
[더불어민주당]



미추홀구 제1선거구 김성준
현) 더불어민주당중앙당 사회복지제도개선특위위원장
전) 미추홀구 주안노인문화센터장
[더불어민주당]



미추홀구 제2선거구 정창규
현) 무한버섯나라 대표
전) 재인천중남도민회 사무부총장
[더불어민주당]



미추홀구 제3선거구 민경서
현) 용현신용협동조합 이사
현) 더불어민주당인천미추홀구 을지역위원회복지로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미추홀구 제4선거구 김강래
현) 더불어민주당인천미추홀구 을지역위원회사회적경제 위원장
현) 사회복지사
[더불어민주당]



연수구 제1선거구 김희철
현) 더불어민주당중앙당 부대변인
전) 새천년민주당중앙당 인사부장
[더불어민주당]



연수구 제2선거구 서정호
전) 남인천고등학교 교사
전) 민주당인천시당 부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연수구 제3선거구 김국환
전) 박찬대국회의원 보좌관
전) 연수구주민자치협의회 회장
[더불어민주당]



연수구 제4선거구 김준식
전) 7대 연수구의원
전) GS리테일 간석점장
[더불어민주당]



남동구 제1선거구 이오상
전) 6, 7대 남동구의원
전) 박남춘국회의원후원회사무소 사무국장
[더불어민주당]



남동구 제2선거구 고준수
전) 박남춘국회의원 보좌관
전) 이해찬국회의원 특보
[더불어민주당]



남동구 제3선거구 박인동
전) 박남춘국회의원후원회 사무국장
전) 6, 7대 남동구의원
[더불어민주당]



남동구 제4선거구 강원모
현) 남동구아파트연합회 회장
현) 더불어민주당인천시당남동을지역 위원회 운영위원
[더불어민주당]



남동구 제5선거구 이병래
현) 더불어민주당중앙당정책위원회 부의장
전) 인천시학원연합회 회장
[더불어민주당]



남동구 제6선거구 김성수
현) 더불어민주당인천시당 청년위원장
전) 문재인대통령후보중앙선거 대책위원회정년위원회 인천본부장
[더불어민주당]



부평구 제1선거구 신은호
현) 인천시의회교육위원회 위원장
현) 부평미군기지반환시민참여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현) 생크빅문고 대표
전) 인천시 부평구 새마을회 지회장
[더불어민주당]



부평구 제3선거구 이용선
현) 더불어민주당부평구갑 운영위원
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더불어민주당]



부평구 제4선거구 김병기
전) KB국민은행 구월동 수석지점장
전) 문재인대통령후보경제산업특보
[더불어민주당]



부평구 제5선거구 임지훈
전) 7대 후반기 부평구의회의장
전) 6, 7대 부평구의원
[더불어민주당]



부평구 제6선거구 박종혁
현) 부평구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
전) 4, 5, 6, 7대 부평구의원
[더불어민주당]



계양구 제1선거구 손민호
전) 대우자동차 주임연구원
전) 7대 계양구의원
[더불어민주당]



계양구 제2선거구 김중득
현) 더불어민주당중앙당정책위 부의장
전) 국회의원유동수후보선거대책본부장
[더불어민주당]



계양구 제3선거구 이용범
현) 인천시의원
현) 경인교대학원발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계양구 제4선거구 박성민
현) 계양테크노밸리추진단 단장
현) 더불어민주당중앙당정책위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1선거구 김진규
현) 인천시의원
전) 서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2선거구 전재운
전) 7대 서구의원
전) 수도권매립지종료조사특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3선거구 김종인
현) 인천시의회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전) 더불어민주당중앙당 부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4선거구 임동주
현) 더불어민주당인천시당 정책위원
전) 5대 서구의원
[더불어민주당]



강화군 윤재상
전) 6대 시의원
전) 7대 강화군의원
[자유한국당]



옹진군 백종빈
전) 옹진농협조합장
전) 5, 6대 군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대표 조성혜
전) 인천여성노동자회 이사장
전) 인천시민사회단체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비례 대표 유세운
현) 문화공작소 세운대표
전) 인천시립예술단 운영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대표 박정숙
현) 인천시당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전) 인천자유총연맹여성협의회 회장
[자유한국당]



비례 대표 조선희
전) 인천여성회 회장
전)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
[정의당]

INFOBOX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보 표기 -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뮤지컬, 공연예술에 관심 있는 누구나 ‘2018 인천왈츠’

인천문화재단에서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만드는 예술 프로그램 ‘인천왈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뮤지컬, 공연예술에 관심 있는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모집 분야 : 드라마, 연주

접수 기간 : 6월 25일~7월 15일

접수 방법 : 홈페이지(www.ifac.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연습 기간 : 7월 28일~11월 16일 매주 토요일 오후

공연 기간 : 11월 17일~18일 1일 1회

공연 장소 : 트라이보울

문의 : 인천문화재단 생활문화팀 ㉠760-1036



경희사이버대학교 한부모 장학생 모집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경희사이버대학교와 함께 한부모 당사자 또는 한부모 자녀들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한부모면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모집 : 6월 1일~8월 17일

자격 : 한부모면 소득 무관 누구나(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회원 가입 후 가능)

장학금 내역 : 한부모 당사자 본인 매학기 수업료 전액 지원(계절학기 포함)
한부모 자녀 및 소속 활동회원 매학기 수업료 50% 지원(계절학기 포함)

홈페이지 : ㉡www.ihbm.or.kr

문의 :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 ㉠525-5188, 경희사이버대학교 ㉠02-3299-8883

인천유나이티드 홈경기 일정 안내

여름밤 축구 축제가 펼쳐집니다. 우리 시를 연고지로 한 프로축구단 인천유나이티드의 홈경기 일정을 안내합니다. 많은 관람 및 응원 바랍니다.



일정

7월 11일 오후 7시 30분 K리그 16라운드 VS 강원FC

7월 22일 오후 6시 K리그 19라운드 VS FC서울

7월 25일 오후 7시 30분 FA CUP 32강 VS 포항시민축구단

장소 : 인천축구전용경기장

홈페이지 : ㉡www.incheonutd.com

문의 : 인천유나이티드 ㉠880-5500

재난 피해자 심리회복 무료 지원

우리 시 재난심리지원센터에서는 재난을 당한 시민 여러분의 심리적 충격 완화와 일상생활 조기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용 부탁드립니다.

기간 : 2018년 상시

대상 : 이재민, 일시 대피자, 재난 목격자, 재난현장 구호자, 자원봉사 및 복구활동 참여자 등

상담 방법 : 방문 및 전화(찾아가는 심리상담)

상담료 : 무료(최대 3회까지 상담 가능)

문의 :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재난심리지원센터 ㉠810-1341



도시특강 시즌1 수강생 모집

인천도시역사관에서 도시와 환경을 주제로 도시특강 시즌1을 진행합니다. 이달 주제는 도시와 하천입니다.

기간 : 7월 14일 오후 2시~4시

대상 : 성인 80명

수강료 : 무료

신청 : ㉡compact.incheon.go.kr에서 선착순 신청
(회원 가입 및 인증 필수)

신청 기간 : 7월 2일 오전 9시~12일 오후 6시

문의 : 인천도시역사관 ㉠850-6026

선착순 심리검사 받으세요!

인천 예그리나 통합심리상담센터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합니다. 진로, 성격, 대인관계에 대한 심리검사를 무료로 진행하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간 : 7월 1일~9월 30일

대상 : 선착순 50명 누구나

접수 : 전화나 이메일

이메일 : incheon-yegrina@naver.com

문의 : 인천 예그리나 통합심리상담센터 ㉠887-8458

새로운 나를 위한 탄짚! 50+ 토크콘서트

우리 시는 50세 이상 세대의 역할과 인식을 재조명하기 위해 50+ 토크콘서트(새로운 나를 위한 탄짚!)를 엽니다.

일시 : 7월 12일 오후 7시 30분~8시 40분

대상 : 우리 시 50세 이상 시민, 가족 등 150명 내외

장소 : 트라이보울

모집 기간 : 6월 18일~7월 3일

모집 방법 : 전화나 인터넷 선착순 접수

문의 :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715-5491, ㉡www.inlife.or.kr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신입생 모집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2018년 후기 2차 야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모집 과정 및 학과

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부동산학과, 재난안전정책학과,

언론·홍보학과, 이민다문화정책학과, 사이버보안정책학과(2년)

접수 기간 : 7월 5일~27일 오후 5시까지

홈페이지 : ㉡admgrad.inha.ac.kr

문의 :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860-8406~7

힐링톡톡(TALK) 가족캠프 개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힐링톡톡(TALK) 가족캠프를 개최합니다. 이번 캠프는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갈등을 겪는 청소년과 부모 사이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자리입니다.

대상 :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청소년과 보호자 1명, 25가족(50명) 선착순 모집

신청 : 5월 1일부터 마감 시까지

참가비 : 1인당 1만5,000원, 취약계층 증명서 제출 시 무료

문의 :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777-1389



근로시간 단축,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고용노동부는 주 최대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주요 내용

- ① 노동시간 연장·휴일 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 실시
- ②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 ③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최대 근로시간 단축
- ④ 휴일 근로 할증을 명시
- ⑤ 특례업종 축소 유지 시 11시간 이상 연속휴식시간 보장
- ⑥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기업의 유급휴일로 의무화
- ⑦ 부대 의견 및 부칙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①1350, ②www.moel.go.kr



‘인천의 소리’ 토크콘서트 개최

인천도시역사관에서 문화가 있는 날 ‘인천의 소리’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고장의 소리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일시 : 7월 25일 오후 7시~9시
대상 : 성인 30명
수강료 : 무료
신청 : ②compact.incheon.go.kr에서 선착순 신청 (회원 가입 및 인증 필수)
신청 기간 : 7월 16일 오전 9시~23일 오후 6시
문의 : 인천도시역사관 ①850-6026

발도르프 교육... 느린 연극교실 운영

부평구 문화재단인 부평문화사랑방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발도르프 교육을 활용한 느린 연극교실’을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행사 내용 : 6월 20일~9월 12일 매주 수요일 오후 5시~7시
대상 : 초등학교 4학년 15명
수강료 : 20만원(12회)
모집 : 6월 5일부터 선착순 마감(홈페이지 접수)
홈페이지 : ②www.bpcf.or.kr
문의 : 부평문화사랑방 ①505-5951

7월 하품학교 ‘버드맨’과 함께

학산생활문화센터 ‘마당’에서 7월의 상영작 ‘버드맨’을 감상하고 전문 해설가의 해설을 듣는 7월 하품학교를 진행합니다.

일시 : 7월 26일 오후 7시
대상 : 인천 성인 시민 누구나
장소 : 학산 소극장 4층
관람료 : 무료
신청 기간 : 7월 3일~20일 전화 및 방문 접수
문의 : 학산생활문화센터 ①866-3993

LPGA 국가대항전 ‘2018 UL 인터내셔널 크라운’ 골프대회

우리 시는 LPGA 국가대항전 ‘2018 UL 인터내셔널 크라운 대회’를 개최합니다.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인천에서 최초로 개최되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회 일정 : 10월 1일~7일
장소 :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홈페이지: ②www.ulcrown2018.com/ko
문의 : 시 체육진흥과 ①440-4955

어린이 체험 전시 ‘헬로브릭’ 진행

부평구 문화재단에서 어린이의 잠재력을 깨우는 체험 전시 ‘헬로브릭’을 진행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간 : 6월 16일~8월 26일
장소 : 부평아트센터 갤러리 꽃누리
관람료 : 어린이 1만7,000원, 어른 1만2,000원
홈페이지 : ②www.bpcf.or.kr
문의 : 부평아트센터 ①500-2000



제17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 안내

우리 시에서 세계적 규모의 검도대회인 ‘제17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가 개최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회 일정 : 9월 12일~16일
장소 : 남동체육관
홈페이지 : ②www.17wkc.kr
문의 : 시 체육진흥과 ①440-4955

‘인천의 공원’ 통합 웹사이트 오픈

인천대공원, 인천수목원, 월미공원, 계양공원 홈페이지가 ‘인천의 공원’ 홈페이지로 통합됩니다. 이제 한곳에서 여러 공원의 소식을 확인하세요.

일시 : 6월 25일 오후 2시부터
홈페이지 : ②park.incheon.go.kr
문의 : 미추홀 콜센터 ①120



인천 도서관 행사 안내

우리 시 소재 도서관들의 다양한 소식을 전합니다. 더 많은 행사 정보는 홈페이지(www.michuholli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엔 ‘두배로 데이’로 정하여 대출권수를 2배로 확대하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미추홀 도서관 여름방학 특별 강좌

미추홀 도서관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특별 강좌를 개설합니다.
과목 : 내 삶의 그림책(성인), 여름 생태 교실(초등 1~3학년), 코딩 교실(초등 1~3학년)
홈페이지 : ②www.michuhollib.go.kr
문의 : 미추홀도서관 ①440-6665

청라호수 도서관 어린이 특강

‘도서관에서 만나요. 월드컵&러시아’라는 제목으로 러시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린이 특강을 합니다.
일시 : 7월 7일 오후 2시~4시
대상 : 초등 1~2학년 30명
문의 : 청라호수 도서관 ①563-8126

영종하늘 도서관 부모교육 특강

‘평범한 아이를 공부의 신으로 만든 비법’을 쓴 이상화 씨가 부모교육 특강을 합니다.
일시 : 7월 14일 오후 2시~4시
대상 : 성인
문의 : 영종하늘 도서관 ①746-9145

송도국제지구 도서관 화요 시네마

매주 화요일 그 주의 테마에 맞는 영화를 상영합니다.
일시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
대상 : 전체
문의 : 송도국제지구 도서관 ①851-6651



아이는 행복입니다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고, 아이와 행복을 나눕니다.
인천 인구 300만 시대, 우리 시에서 성장해 나갈 아기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채나연(남아)
2017년 5월 6일생·미추홀구

부모의 바람
“귀한 나연이 덕분에 우리 집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구나. 엄마 아빠가
사랑으로 노력하고 늘 지켜줄게.”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숨 쉬며 뛰어놀 수
있도록 대기 환경 개선에 힘써주세요.



기정윤(여아)
2018년 2월 5일생·서구

부모의 바람
“사랑스러운 정윤이 덕분에 엄마 아빠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 앞으로도 지금처럼 건강하게 자라줘.”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인천시의 보육정책이
꾸준히 이어진다면 다둥이 엄마도 도전해 보겠습니다.



권소이(여아)
2016년 8월 1일생·부평구

부모의 바람
땅에 떨어져 있는 꽃을 주워 들고 신기한 듯
들여다보는 소이가 꽃보다 더 예쁘네요.
행복한 육아가 되도록 직장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고 실질적인 육아정책이
시행되길 바랍니다.



잠깐!!

우리 시는 취학 전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장난감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민 또는
인천시 소재 직장 근무자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연회비 1만원으로 장난감, 도서, 시청각자료 등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1회 대여 시 7개 품목(장난감 2, 도서 3, 시청각자료 2)

이용 대상 : 인천시민 또는 인천시 소재 직장 근무자로 취학 전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

운영 방식 : 회원제(연회비 1만원)

문의 :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홈페이지(www.dodamtoys.or.kr)

아기와 함께 찍은 가족의 행복한 모습이나 아이의 귀엽고 재미있는 일상을 찍어 보내주세요.

사진과 함께 ‘아기 이름, 탄생일, 성별, 연락처, 주소, 인천에서 성장할 아이에게 바라는 내용 및 인천시에 바라는 내용’을 함께 적어서
메일(goodvoice@korea.kr)로 보내주시면 ‘굿모닝인천’에 게재하고,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아기는 출생 후부터 24개월까지 해당됩니다.)

문의 : 시 브랜드담당관실 ☎ 440-8304

브랜드, 놀이가 되다

크록스

글 이종선 시 브랜드전략팀장



여름이다. 산과 계곡, 바다에는 더위를 피하려는 사람들로 가득할 때다. 이맘때면 거리 또는
피서지 어디서나 비슷한 유형의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마치 예전에 할
아버지 할머니들이 신었던 고무신 같기도 하고, 몽툭한 모습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 어른이
신으려면 용기가 필요하겠단 싶기도 한 신발이다. 바로 크록스(Crocs)다. ‘크록스’라는 이름
은 악어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 크로커다일(Crocodile)에서 유래했다. 악어가 육지와 수중 등
의 공간에서 생활하며 여러 환경에서 잘 적응하는 특징을 살려서 지었다.

미국 콜로라도주 볼더에 사는 세 젊은이 린든 헨슨, 스콧 시먼스, 조이 베
데커는 파도타기를 하면서 놀다가 ‘신발에 구멍이 있으면 물이 잘 빠져
서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서 2002년 세상에
크록스를 내놓게 되었다. 독자적으로 개발한 크로슬라이트라는 소
재를 사용해 무지개 색깔을 본떠 다양한 신발을 출시했다. 부드럽
고 편안한 크록스는 착화감이 좋아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2002년
첫 모델로 제작한 3,000켤레가 3일 만에 다 팔렸고, 출시된 지 15년
만에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3억 켤레 이상이 판매되었다.



크록스가 널리 보급되고 더욱 유명해지게 된 데에는 지비츠(Jibbits)의 역할도 컸다. 지비츠는 크록스
신발에 있는 구멍에 끼우는 배지 형식의 액세서리다. 지비츠를 통해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나뿐인 나만
의 크록스를 갖게 되는 재미와 가치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지비츠의 아이디어는 크록스 제작자가 아니
라 미국의 평범한 주부에게서 나왔다. 2005년 가정주부인 셰리 슈멜저는 아이들의 크록스 구멍에 심심
풀이로 단추나 매듭 같은 모양의 액세서리를 끼워서 장식했다. 자신만의 신발로 재미있게 변신한 크록
스를 자녀들이 좋아했고, 다른 아이들도 이를 따라 하기 시작했다. 이에 용기를 얻은 슈멜저 부부는 아
예 ‘지비츠’라는 브랜드로 크록스 구멍에 들어가는 액세서리를 만드는 조그마한 회사를 설립했고 지비
츠는 그야말로 히트를 쳤다. 지비츠의 엄청난 인기는 슈멜저 부부를 돈방석에 앉게 해주었다. 크록스가
2006년 지비츠를 1,000만 달러(약 110억원)에 인수한 것이다.

물에서나 물에서나 어디서든 신을 수 있는 신발, 거기에 배지 모양의 지비츠를 붙이면 세상 어디에도 없
는 나만의 개성을 뽐낼 수 있는 신발. 크록스는 재미있는 생각이 현실이 되고 또 놀이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브랜드다.



‘한국의 시애틀’ 음악으로 충만하길

글 홍수경 문화 칼럼니스트



1990년대 인천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던 나에게 인천은 음악의 도시로 기억된다. 그 시절 나의 세계는 음악으로 충만했다. 당시 ‘인천의 명동’이라 불렸던 동인천 거리와 지하상가는 조금 과장하면 두 집 건너 한 집이 음악 매장이었다. 학교 앞 분식집에는 디제이가 있어 떡볶이를 먹으면서도 새로 나온 팝 음악을 접할 수 있었다. 당시 베이시스트로 막 밴드에 들어간 친구의 오퍼는 미약하게나마 인천의 록밴드와 인연을 맺었다. 이 때문에 친구는 인천 록 음악계의 셀러브리티를 꿰게 됐고 나는 그런 친구가 한없이 부러웠다.

주말이 되면 우리는 입장료가 1,500원이던 음악 감상실 ‘심지’에 들어가 하루 종일 뮤직비디오를 봤다. 좋아하는 음악은 많았지만 앨범을 살 능력이 안 되는 가난한 고등학생이었기에 음악 감상실에서 그 갈증을 풀었다. ‘심지’와 더불어 주기적으로 찾았던 곳은 동인천과 배다리 등 잡지 ‘핫뮤직’을 파는 공간이었다. 매월 ‘핫뮤직’을 정독하며 음악 감상실 신청곡 리스트를 갱신하는 건 고등학생 음악팬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게다가 내 짝과 친구들은 음악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밴드를 결성해 주안 라이브클럽 무대에 서는 쾌거(!)를 이뤘다. 오프닝 밴드였던 그들의 공연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지만, 록밴드 연주를 처음으로 눈앞에서 목격한 나로선 친구들이 자랑스러울 뿐이었다.

한국의 첫 대형 록 페스티벌이 인천에서 열린다는 소식도 ‘당연하게’ 들렸다. 트라이포트 락 페스티벌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하루 만에 끝나버렸지만 그곳에서 처음 봤던 드림 시어터와 딥 퍼플의 라이브 공연은 평생 못 잊을 감동의 순간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2018년. 뉴욕에 거주하며 인천을 오가다가 문득 누군가에게 선물하고 싶은 음반이 생겨 대형 마트에 들렀다. CD 코너의 위치를 묻자, 직원은 CD가 대체 무엇인지 약 5초간 생각하는 듯했다. 곧 CD는 팔지 않는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혹시나 싶어 동인천 지하상가에 가봤더니 입구 쪽에 잡화를 준비하게 늘어놓은 음반 매장이 보였다. 가게 주인은 35년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했다. 디지털 음악이 일반적인 시대에, 이렇게라도 살아남아 있는 레코드 가게가 고마울 따름이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말고는 인천에서 음악의 흔적을 찾기란 쉽지 않다.

인천은 한때 ‘한국의 시애틀’이라 불렸다. 시애틀은 1990년대 얼터너티브 록으로 세계의 음악 트렌드를 휩쓴 미국의 대표적인 음악 도시다. 현재는 음악보다 커피점 ‘스타벅스’의 고향으로 유명하지만, 그 원조 스타벅스 매장 앞에서도 인디 밴드가 열심히 공연을 하는 동네다. 몇 년 전 시애틀에서 시민들의 음악 사랑을 깨닫게 된 순간이 있었다. 식당이나 카페, 술집에서 듣도 보도 못한 다양한 음악들이 흘러나올 때였다. 거대한 음악 박물관이나 시를 대표하는 록밴드 ‘너바나’의 기념품 가게보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음악을 듣거나 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이 훨씬 더 인상적이었다. 시애틀을 다녀온 후 인천의 음악 사랑도 유산으로 남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페이스북을 통해 인천의 한 라이브 클럽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들을 때도 비슷한 기분이었다. 지금 글을 쓰는 심정도 쓸쓸하다. 음악 관련 필자로서 추억담을 늘어놓기보다 새로운 뮤지션들이 확보하는 도시의 모습을 그릴 수 있다면 더없이 기쁠 텐데. 음악이 짜장면만 큼 도시의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천이 증명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거리에 음악이 넘쳐나기를!



“햇살이 한 줌 들지 않던 시절엔 / 어디든 갈 수 있던 지름길로 우린 / 오색빛갈 휘청이던 거리를 지나가네 / 조그만 빛을 찾아 / 헤매이면 우린 꿈을 / 꾸네 부평지하상가 / 험겨운 꿈을 부평지하상가”

- ‘빛과소음’의 곡 ‘부평지하상가’ 중

새롭고 젊은 인천의 노래를 만들자는 취지로 완성된 컴필레이션 앨범 ‘인천 - Sound of Incheon’ 수록 곡. 10대 시절 음악을 찾아 동인천 지하상가를 헤매던 내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교동도 봉소리 느티나무



오래전, 교동도는 권력에서 물러난 사람들의 유배지였다.

정쟁(政爭)에서 패퇴한 권세가들은 이곳으로 쫓겨나,

건널 수 없는 물길을 바라보며 물과 욕망의 세월을 속죄해야 했다.

때마침, 한양의 권력과 절연한 이 섬에는 느티나무 한 그루가 뿌리를 내렸다.

소박한 평야와 산야를 묵묵히 둘러보는 나무는,

고요하고 느릿한 세상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뜨거웠던 세월을 그리는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을까.

느티나무 그늘 아래 가만히 머무르면, 바다도 육지도 아닌 어느 초연한 풍경을 만난다.

어느새 우리는 섬에 갇힌 신세도 잊고, 감옥의 무거운 빗장도 연다.

나무의 비호 속에, 어디서나 귀양살이였던 마음은 평화를 얻는다.

나이 : 약 330년 / 나무 높이 : 25m
특징 : 강화군 교동면 봉소리 언덕 위에 있는 보호수. 여전히 수세(樹勢)가 왕성하고 4m에 육박하는 둘레를 가지고 있다.